



## 신년사

## 건고하리라



사장 소진우 목사  
예복교회

202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 어느해 보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정치 현장이나 각종 매스컴에서나 사회 각 분야 어느 곳에서도 희망적이거나 긍정적인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 맞이하는 새해이다 보니 새해의 소망의 덕담보다는 한숨 소리가 세상을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새해의 아침을 맞게 되었습니다.

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치가 빨리 안정되기를 기도하며, 무슨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는 참사를 당한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되 대신해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대로 계속 어둡게만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빠르게 회복되는 길이며 어느 길이 정답일지를 찾아야 할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에서, 사람에게서는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당리당락 따라, 지역에 따라, 성별에 따라, 직업에 따라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각자의 내는 목소리가 다르니 어디에서도 정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답은 하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을 보면 여호사밧왕은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상황에서 두려

움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건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말에 힘을 얻어 백성들이 그 적군을 향하여 나아 가는데 그날 가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하며 갑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였습니다. 그랬더니 연합군으로 오던 그 군대가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서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는 바람에 유다 사람들은 손 한번 찔적도 없이 그 적군들은 한 명도 산자가 없이 다 죽었고 그 군대가 가져왔던 전리품을 거둬들이는데만 사흘이 걸렸으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싸우실거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선지자의 말을 신뢰한 결과는 생 각박의 축복을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눈앞에 상황이 아무런 대책도 없어 보이고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일 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 사람은, 그 나라는 건고하여 질 것이고 그 사람은 형통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나온 인류의 역사속에서 그 어느 시대에도 우울하지 않았던 때는 없었습니다. 그 어느 시대에도 문제 없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만 있고 우울하기만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얼 보면 아느냐면 지금 세상은 돌아가고 있고 또 그 속에 지금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지않습니까. 문제를 보지 말고 그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합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독자 모든 분들이 금년에는 "감의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 2025년 신년사



한교총 대표회장  
김종혁 목사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국민과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께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사회적, 정치적 혼란을 겪으며 온 국민이 어려운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교총은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다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와 섬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적 가치를 존중하며 정교분리의 원칙을 견지합니다. 교회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평화와 화해의 길을 여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원칙 하에서 우리는 어떠한 정치적 진영에도 치우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양심과 믿음에 따라 정의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올해는 분열과 대립을 극복하고 국민 화합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를 본받아, 우리 사회에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를 이루어 가는 대장정에 한국교회가 헌신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교총은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웃 사랑과

섬김의 실천을 통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격려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새해는 특별히 소외된 이웃들에게도 희망의 빛이 비추지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 탈북민과 다문화 가정의 우리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교회는 더욱 적극적으로 그들의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용기와 사랑을 전하며,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엄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새해에는 북한 동포들에게도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북한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동시에,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물꼬가 트여 통일 새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한교총은 끊임없이 기도하며 노력할 것입니다.

새해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아픔을 넘어서 새로운 희망과 화합의 길을 모색하는 데 온 국민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성도들과 함께 더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웨신)

## 2025년 신년사



총회장  
김안식 목사

지난해 이 나라의 현실을 보며 영적 파수꾼들로서 현실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무릎 꿇았던 우리는 새해에도 여전히 주님께 무릎으로 나아가 도우심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작금의 우리 사회의 아픔들은 '우리들의 죄악으로 인한 결과'(사59:2)임을 인식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잠3:11~12)로 받아들이고 회복케 하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새해가 되길 축원합니다. 이제 대망의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바람을 피하며 피는 꽃은 없다고 합니다.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전능자,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

리스도를 굳게 믿음으로 새해를 힘차게 출발하십시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화2:4)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모으고 힘을 내십시오.

새해 새 일을 행하실 주님!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이 나라와 교회가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되게 하소서. 한 해 동안 주님의 통치가 나 자신으로부터 이루어지도록 심령이 가난한 자로 주 앞에 서게 하소서. 주님, 새해에도 여전히 우리 웨신총회와 함께 하여 주소서. 아멘.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저스타임즈를  
볼 수 있습니다



# 축 에장 합동보수 2025. 신년감사에배

## 주제 :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

총 회 장

증경 총회장



이규필 목사  
동천교회



강대일 목사  
평안교회

부총회장

서 기

부 서 기

회의록서기

부회의록서기

회 계

부 회 계

총 무



전예희 목사  
성광교회



서재석 목사  
중성안교회



천중록 목사  
연약교회



김주현 목사  
별라뿔비야교회



이혜숙 목사  
두손을모은교회



안갑은 장로  
금천시온교회



강마선 장로  
평안교회



백용순 목사  
화국안교회

사단법인 에장합동보수 연합전교회  
이사장 : 이 규 필 목사

신년하례 일시  
일시: 2025년 1월 6일(월) 오전 11시  
장소: 동천교회(총회장 이규필 목사시무)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53길94  
안내: HP 010-7474-3173 / 010-6256-3173

총회 /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94(가산동 151-47 / 동천교회) 전화 / 02)496-0191



## <2025년 신년사> 어둠 속에서도 밝음을 향하여 나아가자 뿌리치는 손길보다 마주 잡는 모습을 갖자



한국교회연론회 대표  
임대영 목사

2025년 새해가 밝았다. 모든 것이 새롭고, 또 새로 위지도록 모든 사람들이 노력해야겠다. 역사를 새롭게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다. 우리의 체질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행동이 달라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미움이 많은 세상에 사랑을 주시고, 죄악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원수진 사람들이 서로 손을 맞잡게 되기를 바란다. 아무리

극한 겨울이라도 파스한 봄날이 되면, 모든 것이 사르르 녹아내리듯이, 이 땅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강물이 철철 흘러넘치기를 바란다.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로 상처 많은 사람들의 아픔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기를 바란다. 억울하다며 분노하는 마음들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심이 있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세상에서 원수를 지고살 수 없다. 내가 나를 미워하는 씨를 뿌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원한과 마음들이 풀려지기를 바란다.

그러한 능력과 소망은 한국교회와 함께 세상 가운데 더욱 널리 퍼지기를 바란다. 돌처럼 굳은

손마디들이 부드러워지고, 굴곡 많은 세상, 막히고, 묶이고, 미워스러움에 온통이 흐르기를 바란다. 야차(夜叉) 대하듯 하는 정치권에도 협력의 물결이 트여지기를 바란다.

모든 갈등 세력, 그런 것을 붙잡고 바른 것이라고 우기는 사람들, 잘못 가는 길을 따라오라는 사람들, 절대로 빼앗길 수 없다는 강요한 욕심들,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며 외나무다리 위에 서 있는 사람들,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넘치기를 바란다.

온 나라, 자유 대한민국,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사랑이 마음을 이기는

나라가 되기 바란다.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수심 갈래로 갈라지고 쪼개져 분열된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

2025년,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된 지 140년이 되는 해,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 건국 77주년이 되는 해, 우리 민족은 복음을 받고, 광복을 이루어 자유를 얻었으며, 자유민주주의를 꽃피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나라,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2025년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의 시간으로 채우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무안공항 제주항공기 참사



세계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김상복 목사, 전운태 장로)는 2일 오후 2시 무안공항 제주항공기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자원봉사단에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에는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전남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이명운 목사, 서기신철원 목사, 회계 김웅장로, 다음세대위원장 이정준 목사, 최성균 목사, 목포성시화운동본부 본부장 조성덕 목사, 사무총장 박정안 장로, 여수성시화운동본부장 이승필 장로, 여수기독교단체총연합회 사무

총장 이광식 장로, 재무국장 김영애 원사, 세종성시화운동본부 공동회장 염세영 목사, 민들레기도팀장 박현주 사모 등이 함께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한국기독교연합회본단에 휴대용 물티슈, 휴대용 화장지, 음료수, 갈륨, 에너지바, 카스타드, 치약 칫솔세트, 바나나, 에너지바 등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성경에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셨다. 항공기 참사로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진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사고수습이 잘 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전남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이명운 목사는 “이번 참사로 우리교회 집사님의 딸도 희생됐다.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 되어 너무 마음이 아프다.”며 “유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슬픔과 고통을 잘 이겨내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기독교연합회본단 조인성 목사(무안서부교회)는 “오전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봉사를 하고 있다. 감사하게도 예수를 믿지 않는 어떤 분이 저희들의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매일 김밥 1,000줄을 보내주신다.”고 말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방문단은 이번 사고로 딸을 잃은 전남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이명운 목사가 시무하시는 목포하당제일교회 황 모 집사 부부가 머물고 있는 헬터방문해 위로하고 함께 기도했다.

이어 사고대책본부를 방문해 김원이 국회의원, 서상석 국회의원, 김대중 교육감, 김성 장흥군수, 도의원, 시의원들을 만나 사고대책현황을 청취하고 함께 기도했다.

이날 위문품과 성금은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전남성시화운동본부, 전북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김도경 목사), 익산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윤호웅 목사), 여수성시화운동본부, 세종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임광열 목사),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민들레기도팀, 여수기독교단체총연합회(회장 정금열 목사), 전남기독교윤리실천운동(대표회장 장로), 여수시조찬기도회(정완환 목사), CBMC전남동부연합회(회장 문태서 장로) 등이 후원에 동참했다.

한편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대구 코로나19 지원, 해외 70여 국가 코로나19 마스크 및 성금 그리고 3억원 어치의 의류(언더웨어)를 전달했다.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는 루마니아, 폴란드, 체코 등에 흩어져 있는 난민들에게 성금과 생필품을 전달하는 등 사랑실전을 해오고 있다.

## 한기총 2025년 신년하례예배 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평의 꿈을 이루는 한 해 되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기총)는 7일 (화)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아가페홀에서 ‘2025년 신년하례예배’를 드리고, 새해 대한민국의 안정과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다.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신년사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대단히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특히 국민의 갈등과 대립, 분열은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파면’, ‘구속’이라는 극단적 선행 구호로 국민을 자극하고, 편을 갈라 오로지 흑백논리로만 판단해 분열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지도자라면, 갈등을 봉합하고, 분열을 화해시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정서영 대표회장은 “목인 것을 풀고, 열어있는 마음을 녹여,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며 “2025년이 대한민국에 전례 없는 화해와 용서의 원년이 되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 일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 소망의 한 해, 화평의 꿈을 이루는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며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는 모두 되기를 축복한다”고 전했다.

공동회장 안이영 목사의 사회로 드려진 예배에서 공동회장 이현숙 목사가 대표기도를 했으며, 명예회장 박홍자 장로가 성경을 봉독했다. 특송이 있는 뒤 증경대표회장 엄신형 목사가 ‘뜻대를 향하여’(빌 3:13~14)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엄신형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뜻대를 분명히 세우고, 또한 천국의 상급을 바라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사는 것이 승리하는 삶”이라며 “상급을 받으면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고, 주님께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 또한 신앙의 본을 보이며

앞서가야 한다”고 했다.

엄 목사는 “지금 정치적 혼란이 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가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다”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한기총이 올해도 하나님의 힘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뜻대를 향해 달려가자”고 전했다.

봉헌과 봉헌기도가 있은 뒤 신년축사가 이어졌다. 명예회장을 대표해 김용동 목사가, 공동회장을 대표해 권태진 목사가, 회원교단을 대표해 심하보 목사가, 회원단체를 대표해 고경환 목사가 각각 축사했다.

먼저 김용동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 곧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새벽에 꼭 읽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권태진 목사는 “대한민국은 믿는 이들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올해 대한민국의 신권과 인권, 자유가 지켜지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꼭 승리하자”고 했다. 심하보 목사는 “올해도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경환 목사는 “한기총이 힘들고 어려웠던 때가 있었다. 이제 그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한기총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후 특별기도 순서에선 함동근·김상진·이영희·윤광모 목사(이상 공동회장)가 차례로 대한민국의 안정, 한국교회와 한기총, 무안공항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 세계복음화와 선교사를 위한 기도를 인도했다. 사무총장 김정환 목사의 광고와 참석자들이 찬송한 후 증경대표회장 엄기호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 대통령(공석) □ 국무총리(공석)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공석)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공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공석) □ 외교부장관(공석) □ 통일부장관(공석) □ 법무부장관(공석) □ 국방부장관(공석) □ 행정안전부장관(공석) □ 국가보훈부장관(공석)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공석)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공석) □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공석) □ 보건복지부장

관(공석) □ 환경부장관(공석) □ 고용노동부장관(공석) □ 여성가족부장관(공석) □ 국토교통부장관(공석) □ 해양수산부장관(공석) □ 방송통신위원장(공석) □ 서울중앙지검장(공석) □ 경찰청장(공석) □ 서울경찰청장(공석) □ 육군참모총장(공석) □ 방첩사령관(공석) □ 수방사령관(공석) □ 특전사령관(공석) □ 정보사령관(공석) □ 방첩사 1처장(공석) □ 방첩사 수사단장(공석)

무려 31개 부처가 공석입니다. 대한민국을 해치려는 자들은 누구인가? 국정이 마비 상태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살려야 합니다.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드려야 할 시급한 때입니다.

##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 좋은 만남 행복한 성도



담임목사 박수영

| 예배시간 안내 |                 |
|---------|-----------------|
| 주일예배    | 오전 11시<br>오후 2시 |
| 수요예배    | 오후 7시           |
| 금요기도    | 오후 8시           |
| 새벽기도    | 오전 6시           |

##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복샘교회

대구광역시 동구 송라로 16길 11 동대구반도유보라 후문  
TEL. (053) 752-8238



## 꾸미오리기독무용신학 신입생 모집 요강



김창숙 목사

◆ 꾸미오리기독무용신학은 세계로신학술원과 학점교류를 통해 세계로신학술원 학장명의로 졸업장 수여함.

◆ 과점수로 후 세계로신학술원을 통해 연장수업으로 (USA/Cumberland University 학위 취득이 가능함).

과정 : 찬양, 율동, 워쉽, 한국무용 수업요일 : 매주 월, 수, 금

장소 : 꾸미오리선교센터(경기도 양주시 교암동182-3)

문의 : H.P 010-4137-0796 (김창숙 목사)



세계로신학술원 · 꾸미오리기독무용신학

## 지저스타임즈는 광고와 구독료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 지저스타임즈 구독자 제위께

2025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복주심과 변창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저스타임즈와 cjtn tv는 구독자 여러분의 구독료 및 후원으로 방송선교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신문 방송은 지난 해 창간 20주년을 맞이한 바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의 기도와 후원에 힘입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본 언론사는 후원과 자유로운 납부제도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더 좋은 신문과 방송이 되기를 약속하며 많은 협조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항상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지저스타임즈 cjtn tv

이사장 박중서 목사 연부협 총재 허창범 목사  
사장 소진우 목사 발행인 정기남 목사 사무총장 류재현 장로

## 후원과 구독료 계좌

하나은행 : 758-910292-36807 정기남  
국민은행 : 455-21-0339-406 정기남

계좌로 구독료 및 신문방송 선교 후원은 반드시 실명으로 하셔야 하며 문의는 010-5468-6574 이며 1년 구독료는 50,000원



지저스타임즈  
THE Jesus Times

H.P 010-5468-6574 E-mail : cpj5037@daum.net / jtntvcjpj@naver.com



## 예장 합동보수 2025년 신년하례예배 드려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



▲ 신년하례 단체사진



▲ 설교하는 총회장 이규필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 총회장 이규필牧사는 부부동반한 총회원들과 함께 2025년 신년하례 감사예배가 지난 1월 6일 서울 금천구 시흥



▲ 축도하는 증경총회장 강대일 목사

대로153번길94 소재 동천교회당에서 2025년 신년인사로 덕담을 나누었으며, 화기에애한 가운데 감사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렸었다.

이날 1부 예배는 서재식 목사(서기)의 인도로 진행되어 (부총회장)전예회 목사의 기도과 (회의록서기)김주현 목사의 성경봉독(고전 15:10)이 있은 후 총회장 이규필 목사가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 은혜”라는 제하의 말씀을 전한 후 회계 안갑훈 장로가 기도드리고 (총무) 박용순 목사의 광고에 이어 증경총회장 강대일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날 총회장 이규필 목사는 “2025년 신년하례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2025년은 합동보수 총회원들 간의 친목을 다지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다”면서 “목회 현장에서 각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마음으로 목회해야 한다고 했다.

바울의 복음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그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다고 했다.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신앙이 이

여져야 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역할이 중대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목회자는 작은 큰 목회를 은혜로 여기고 감사로 여기면서 그 삶 속에 사도 바울같이 고난도 은혜, 부흥도 은혜, 아픔도 은혜로 감사했듯이 목회자 역시 그러한 삶을 갖고 사역할 수 있는 은혜 충만한 총회원이 되기를 축복했다.

이어 새해를 맞이한 총회원들은 뜻을 같이하여 통성기도를 드린 후 마쳤다.

이어 2부 특별기도회는 남궁열 목사(서인천노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중부노회 천종록 목사,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하여 서경노회장 민경임 목사, △총회와 노회를 위하여 경기증경노회장 조창래 목사, △전국교회와 동천교회를 위하여 한중노회장 이세중 목사, 마무리 기도는 남궁열 목사 순서로 기도회를 마친 후 기념 촬영을 갖고, 동천교회에서 기념타올과 달력을 증정하고 이선영 목사와 백갑순 권사가 만찬을 준비하고 대접했다.

## 기독교인 81% 종교가 내 삶에서 중요하다

천주교 신자는 53%, 불교 신자는 33%에 그쳐 한국리서치의 “종교인식조사”에서 밝혀지다



한국교회인문회 신임대표 임다햇 목사

나타났다.

또 종교활동에서도 매주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에서 기독교인은 55%, 천주교인은 27%, 불교인은 4%로 자기 신앙에 대한 충성도에서도 기독교가 월등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통계는 한국리서치가 지난 11월 22일부터 25일 사이에 전국에 있는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표본 집단으로 하여 조사한 것에서 나타난 것이다. 3.1%의 응답률과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는 ±3.1%p이다.

이 조사에 의하면 전체 종교인은 49%인데, 그중에서 기독교인 20%, 불교인 17%, 천주교인 11%로 나타난다. 이런 추세는 지난 2018년부터 거의 변함이 없다. 기독교는 2018년에는 22%를 차지했으나, 그 후에는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천주교는 2018년에 12%를 차지했으나 그 후에는 11%대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불교는 변함없이 17%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종교인은 51%를 차지한다.

연령대를 놓고 보면, 기독교인은 18~29세 까지 젊은 층이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교는 8%, 천주교는 7%로 나타난다.

연령층이 올라감수록 종교를 가진 비율이 높아진다. 그중에서 기독교인은 30대 16%, 40대 20%, 50대 20%, 60대 23%, 70세 이상이 29%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기독교인은 22%, 불교와 천주교는 각각 13%를 차지한다. 인천·경기에서도 기독교인의 비율이 가장 높아 22%를 차지하는 반면, 불교·천주교는 각각 12%를 차지한다.

그리고 대전·세종·충청에서 기독교인은 21%, 불교는 17%, 천주교는 10%를 차지한다. 광주·전라에서는 기독교인이 25%, 불교인 11%, 천주교인이 10%를 차지한다. 대구·경북에서는 기독교인 15%, 불교인 24%, 천주교인이 10%를 차지한다. 부산·경남에서는 기독교인 14%, 불교인 29%, 천주교인이 7%를 차지한다. 마지막으로 강원·제주에서는 기독교인 17%, 불교인 19%, 천주교인 11%를 차지하며, 기독교는 서울·경기·인천·대전·세종·충청·광주·전라권에서 비율이 높고, 불교는 대구·

경북·부산·울산·경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기독교인은 남자가 18%, 여자는 22%를 차지하여 여성의 비율이 높다. 불교도 여성의 비율이 높아 17%, 남성이 16%를 차지한다. 역시 천주교도 여성의 비율이 높은데 12%, 남자는 10%를 차지한다. 이는 지난해 조사와 비교해 보면, 기독교는 여성이 1%로 늘어난 것이고, 불교는 남자·여자가 각각 1%씩 줄어 들었으며, 천주교는 남자 신도가 1% 늘어난 결과이다.

60세 이상 고령층으로는 천주교 47%, 불교 44%, 기독교 41%의 비율로, 전체 인구의 평균 32%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모든 종교인구 비율이 고령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년 전과 비교하여 믿는 종교가 변화된 사람은 7%이다. 그중에서 자기가 믿던 종교를 떠난 비율은 불교가 11%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가 9%, 천주교가 7%였다.

종교가 있는 사람이 매주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전체적으로 31%로 지난해보다 2%p 늘어났다. 그중에서 기독교인은 55%가 참여하고 있고, 천주교인 27%, 불교인은 4%만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인의 충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독교인 가운데 10%는 종교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이에 비해 천주교인은 31%, 불교 신자는 19%)

그리고 가장 중요한 종교활동이 내 삶에서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가의 조사에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에서 기독교인은 81%, 천주교인은 53%, 불교 신자는 33%만이 그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이번 조사를 보면서 우리 기독교에 큰 과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는 10~20대의 13%와 30대의 16%에 머물고 있는 복음화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젊은 세대를 겨냥한 다양한 복음 전수의 접근 방식을 개발해야 한다.

두 번째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51%에 이르는 무종교인에 대한 복음 전파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무종교인이 늘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부유함과 생활의 안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 또 교회에 대한 부정적, 불신앙적 분위기에 편승하고 있다. 이런 걸림돌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

세 번째로 지역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복음 전파에도 힘써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도의 비율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느냐의 문제이다. 성경은 분명히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것을 명령하고 있다.

## 예장진리(총회) 대한노회 신년하례

주제 : 하나님 사랑을 알았고 또 믿는도다



▲ 진리총회 신년하례 단체사진

대한예수교장로회(진리)총회 대한노회(노회장 장한국 목사, 우측사진)는 지난 1월 2일(목) 오전 11시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로10, 7층 대림프라자 고흐5 주사랑교회 분당에서 총회장 겸 노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신년하례회 감사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날 서기 김종천 목사의 예배인도

로 시작되었으며, 대표기도에 김은임 목사, 김종천 목사는 요한 1서 4:16~18을 봉독하고 노회장 장한국 목사는 “하나님 사랑을 알았고 또 믿는도다”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노회장 장 목사는 말씀에서 새해 2025년에는 주 안에서 뜻하신 일들이 다 이루어시기를 바란다면 인사를 나누고 오늘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잘 소화해서 통째 믿음을 받아

서 이 말씀이 진정으로 말씀이 여러분의 속에 들어가 계시면 새 영으로 바뀔 수 있다고 했다.

일곱 영으로 기름부어 받아서 장차 철장 권세까지 주시어 예언 사역도 하게 하실 것이며 일곱영으로 스테판 같이 순교도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다.

또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사랑이다(요 1서 3:2). 이는 7년 대환란 날에 순교계 하신 후 재림 주님과 똑같은 부활체, 영광된 몸으로 우리를 변케 해주실 것임을 우리로 알게 하고 소망케 하심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다. 또 이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면, 우리의 크나큰 두려움은? 바로 예수 때문에 고문당하는 것이요, 또 사형당하기 직전의 공포이며, 그런 것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확신하니 두려움을 쫓는다고 했다. 새해에는 이런 것이, 아낌없이 있는 것을 다 하여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며 말씀을 마친 후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한편 총회장 장한국 목사는 “전민족 성경 신앙 박사 교육원 제2기 모집에 있어서 총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구했다.

축

# 2025년 예장진리총회 신년감사예배

표어 : 알고 또 믿으라 (대한노회)

총 회 장

2025년 근하신년



총회장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서 기

회의록서기

회 계



김종천 목사



김은임 목사



김정미 목사

전민족 성경 신앙 박사 교육원  
(All Nations Seminary for Doctor of the Bible and the Faith)

제2기 신입생 모집

교육원 특징

- ① 전 세계 기독교인들로 전례 한국, 기독교계의 참 지도자 되기를 사모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오직 영여모한 인터넷 온라인 방식으로 교육 전체 어디서나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
- ③ 오직 성경중심의 강해와 조직적 체계화된 전례 교육을 함으로써 선지자적인 성경관 및 신앙관을 세워 성경 및 신앙 면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이 되도록 함에 교육의 목표이다.
- ④ 궁극적으로는 각국 기독교계의 차세대 회교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을 지향한다.

수강 자격

- ① 영어 수감 가능한 수세 기독교인
- ② 신학교 졸업자 또는 학사이상 졸업자(다만 특별한 경우 법인이사회를 거쳐 교육원장이 인정할 자는 예외 가능)
- ③ 정기 모집일은 매년 2월, 7월 중에 하되 이를 본 교육원 홈페이지(www.ANSDBF.com)에 공지하여 제출 서류는 사진 포함 입학 신청서(소정양식)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금은 매 학기 100 USD(\$로 하되 납부 시기는 매년 2월과 7월 중순경에 납부한다.



신학교 졸업자 또는 학사 학위 소유자

서류: 신청서 사본(사진포함)  
학제: 2년제 4학기 운영  
1학기 매년 3-6월  
2학기 매년 8-11월  
수시입학 가능

신년하례 일시

일시 : 2025년 1월 2일(화) 오전 11시

장소 : 주사랑교회(장한국 목사) 본당

주소 :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로 10, 7층 (대림프라자 고흐5 Tel 031)424-7612

진리총회 :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로10, 7층 대림프라자 고흐5 Tel 031-424-7612

총회장: 장한국 목사 H.P 010-4436-7060, 서기: 김종천 목사 010-4732-1533



# 예장 웨신총회 2025년 신년감사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 주제 :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 신년하례 단체기념



▲ 전 총회장의 인사와 덕담을



▲ 말씀선포 총회장 김안식 목사

예장 웨신총회(총회장 김안식 목사, 총무 김복래 목사)는 지난 1월 6일(월) 오전 11시 2025년 신년 감사예배 및 하례식을 갖고 웨신총회 가족들이 새해를 은혜가운데 힘차게 출발했다.

베뉴비안(서울 신길동 소재) 4층 특실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고후 5:17)이라는 주제를 걸고, 총회원 100여명이 참석하여 새해 덕담을 나누며 사랑과 은혜 가운데 새해를 시작했다.

부총회장 정성봉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예배에서 총회장 김안식 목사는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가야 할 땅을 앞에 두고'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김 총회장은 국내외적 상황이 어려운 시기에 모든 총회원들이 더욱 기도에 힘쓰고,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합심기도시간에는 무안공항 제주항 참사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였고, 이 나라에



▲ 신년하례 계획절단을 갖는 모습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다. 이어서 전 부총회장 이영선 목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전 부총회장 마순덕 목사가 총회와 노회의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총회장 김복래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2부 하례식에서 총회장 김안식 목사는 신년 메시지를 통하여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총회원들은 오직 주만을 바라보며 사역에 매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해가 되자고 강조했다.

한편 전 부총회장(시인) 하종우 목사가 '새해 새아침'이라는 제목의 축시를 통하여, 새해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열정을 품고 일하는 웨신 목장이 되게 해달라고 노래했다. 이날 행사는 증경총회장단에 대한 세배례와 덕담이 이어졌다. 직전총회장 김현수 목사, 전

총회장 허창범 목사, 이영풍 목사, 감사 오상렬 목사, 서경노회장 고영진 목사는 덕담과 새해 인사를 통하여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목회자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진 신년축하 찬양에는 경전노회 김병화 목사가 기타연주 찬양을, 호남노회 김재진 목사가 색소폰 연주 찬양으로 큰 박수를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행사 후 참가자들은 오찬을 함께 나누며 새해를 축하하고 서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행사를 마치고 동서노회 이병만 목사(전 서기)는 더욱 발전하는 109회기 총회를 보고 하나님께서 총회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한 해 동안 총회가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초고 작성 부총회장/총무 김복래 목사)

## 한기총 2025년 신년메시지

### 대한민국을 회복하는 용서의 전령이이 되기를

“또 심자가로 이 돌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심자가로 소멸하시라”(엡 2:16)

2025년 소망의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나아가 온 세계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대단히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갈등과 대립, 분열은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파편’, ‘구속’이라는 극단적 선택 구호로 국민을 자극하고, 편을 갈라오로지 흑백 논리로만 판단하여 분열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지도자라면, 갈등을 봉합하고, 분열을 화해시킬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가져올 뿐 평화를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율법적 평화는 힘의 균형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행정부는 완전히 무너져 있고, 입법부의 힘은 막강합니다. 특히 거대 야당은 ‘탄핵’의 칼로 행정부와 사법부를 그야말로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입법부를 향한 견제를 받아 주고, 가진 힘을 행정부와 사법부를 공격하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더 발전적인 방향,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방향을 위해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여, 야가 힘을 합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균형을 맞추고, 적절히 견제하며,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대안 마련을 통해 지금까지 나타난 한계와 문제점을 고치고 대한민국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나아가 폭력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을 회복하는

화해와 용서의 전령이 되어야 합니다.

오 리를 가게 하면 십 리를 동행하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드릴 수 있는 힘은 사랑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현실에서는 가장 어려운 것이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살아낼 때 진정한 화목과 평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온전함입니다.

무인 것을 풀고, 일어있는 마음을 녹여,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2025년이 대한민국에 전례 없는 화해와 용서의 원년이 되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새 소망의 한 해, 화평의 꿈을 이루는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며 원수 된 것을 심자가로 소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 신년아침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 포토뉴스 | 한파속 국민들



### 대한예수교 장로회 푸른솔교회

2025년 근하신년

#### 2025년도 표어

**열방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
- 선한 능력으로 이웃에게 칭찬받는 교회
-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

#### 2030Vision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 ▶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 ▶ 이웃에게 칭찬받는 교회
- ▶ 성령충만하여 사랑 감동하는 교회
- ▶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

**원로목사 허창범(Ph.D. Th.D.)**

(전) 예장 웨신총회장  
(현) (사) 한국상담교육발전협의회 이사장  
(현) 웨스트민스터바울신학교 학술위원장  
(현) 한국기독교교인본부총무협의회 총재  
(현) 푸른솔교회 원로목사  
(전) 지저스타임즈 전 이사장/언부협 총재

**담임목사 김사라(Th. D.)**

- 전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 세한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웨스트민스터바울신학교(M.Div)
- 美 Cumberland University 신학박사
- (현) 푸른솔교회 위임목사, 호남노회장
- (현) 예장 웨신총회 임원

**교회 주요과제**

- 1) 주님과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창 2:43-47)  
사도행전 2:42 부흥운동
- 2) 제자로 세워지는 교회 (마 9:23-24)  
제자 양육으로, 영혼 고결한
- 3) 성경침묵하는 인애, 성구100절 암송  
영혼과 기도로 영혼으로 영혼으로 영혼
- 4) 모이기를 믿는 교회 (마 10:25)
- 5) 이웃에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마 10:36-37)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로11번안길 47(영무예다움 2차 후문 앞. 수완중 옆)  
**TEL:(062) 953-4620 H.P : 010-8665-5522**

### 대한예수교 장로회 아산임마누엘교회

표어: 영원한 응답의 시작

2025년 謹賀新年

**담임강악수 목사**  
본사 부이사장

#### 예배시간안내

|         |         |
|---------|---------|
| 주일 1부   | 오전 9시   |
| 주일 2부   | 오전 11시  |
| 주일 3부   | 오후 3시   |
| 수요기도회   | 오후 8:00 |
| 금요기도회   | 오후 8:00 |
| 매일 새벽예배 | 오전 5:30 |

경기도 아산시 득산로41번길 49-16 교회 : (041) 546-4325 010) 3759-9192  
237이민자지원센터(다민족센터), 237서밋스쿨(유치부,초등대안학교) 충남 아산시 서부 남로856 2층



# 예수사랑치유대성회,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 서울 한복판!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있다!



원장 예사랑 목사  
우주영광교회



사무총장 이선한 목사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니라”(잠 15:13).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 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올을 떠나게 되느니라”(잠 15:23-24). 아멘.

서울 한복판 종로 5가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바람으로, 성령의 바람으로, 치유의 바람으로 불타고 있다. 원장 예사랑 목사는 목회자가 변화되고 살아야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산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살고 성도들이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어야 한다면 역설하고 있다. 그래서 예사랑 원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때로는 산에서 또는 차디찬 교회의 바닥에서 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해골 때와 같은 이 백성들을 살리는 역사

가 일어날 것을 믿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밤을 새워가며 기도드리고 있다.

그래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매주(화) 오후 2시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에서, 매주(화) 밤-(금) 오후 2시, 오후 9시 서울 종로구 대학로18(효제동 301-2) 3층), 예수사랑치유원에서 불을 토하듯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원장 예사랑 목사이다. 또한 이곳에서 주일 오후 2시, 7시에 예배와 치유성회가 진행되고 있다. 원장 예사랑 목사는 캄캄한 서울 한복판에서 예수 사랑치유대성회를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볼꺼진 가슴들, 눈먼 소경들, 임이 있어도 병어리가 되어버린 목회자들, 이러저러한 병든 자들, 중풍병자 등, 이들이 가슴에 불이 붙었으며, 눈이 열렸으며, 입이 열리고 진리를 외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대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누구든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종로구 대학로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을 찾아오면 된다. 종로에는 이미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 말씀의 불기둥이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 이를 지난 1년 동안 원장 예사랑 목사는 장로와 권사들과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면서 헌신을 다하고 있다. 원장 예사랑 목사와 성도들은 기부문화 나눔으로 서울 종로

탐골공원을 찾아 추위에 떨고 있는 노숙인들에게 손난로를 제공하는가 하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혼 살리는데 헌신을 다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다.

예사랑 원장은 서울 종로구 종로 222(광동빌딩 51호)에 영광집터를 오픈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위하여 따끈한 차와 식사를 준비하고 허기진 이들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다. 현재 탐골공원에서 노숙하고 있는 분들이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에서 열리고 있는 예수사랑치유대성회에 참석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새 힘을 얻고 새 삶을 갖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탈북민들 30여 명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으며 예수사랑치유선교 후원회 예사랑 원장은 찾아온 탈북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면서 매월 그들 1인당 10만 원의 선교비를 전달하고 있다. 반면 탐골공원 노숙인들을 찾아가 위로하면서 매주 1인당 5,000원씩 전달하고 있다. 원장 예사랑 목사는 또한 삼만교회 후원을 위하여, 백만 성도 대성회를 목표로 진액을 짜내는 기도를 매일 밤, 기도드리고 있다. 예사랑 원장은 본명이 있지만 본명이 알려지는 것보다 예수님의 이름만 알려져야 한다면 인터뷰에서도 본명을 사양했다.

그렇다 작금의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교회를 보자! 목회자는 물론 교계 지도자들을 보자! 목회자요, 지도자인 그들은

그리스도가 있는가? 그들은 명에가 그리스도다! 대표 총제, 대표회장, (총)자가 들어가는 직함이 하나입니다. 이들은 입으로는 목사 같은데 그리스도가 없다. 성령이 없다. 매주 설교는 하는데, 인본주의적인 만담만 늘어놓다가 두 손이 아닌 한 손만 들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쳤다고 한다. 여기에 용광로와 같이 끓는 성령의 역사는 있는가? 없다.

하지만 종로 한국기독교교회관을 와보았는가? 종로 5가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에서 매주 화요일이면 용광로와 같은 불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는 것이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외침이기도 하다. 종로5가 일대는 뜨거운 불기둥이 이곳을 찾는 자마다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토록 염려 근심 질병 고통으로 어두웠던 분들이 예수사랑치유대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있다. 말씀을 통하여 치유받는 역사가 시간시간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어두움은 물러가고 열굴이 환한 보름달이 되었다.

원장 예사랑 목사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매월 몇 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항상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감사가 넘친다고 말한다. 정작 예사랑 원장은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집도 없다. 자가용도 없다. 대중교통이 유일한 자가용이라고 감사하고 있다. 전철을 타고 버스를 이용하지만 배고픈 자의 앞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면서 지갑에 남은 만원을 건네주고 나면

지갑은 비어있다. 그러나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며 할렐루야 감사를 드리고 나면 또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며 찬양을 드린다.

집이 없고 자가용이 없어도 기도드리고 있는 장소가 천국이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성전에 엎드려 기도드리는 것이 행복이요 축복이요 천국이라며 기뻐하고 있다. 그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드리다는 원장 예사랑 목사이다. 예사랑 원장은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풍랑도 다 극복하게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며 참석한 자들에게 강한 믿음을 가지라고 권한다. 그러면서 예사랑 원장은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적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며 소망이 여기에 있다’고 말한다.

예사랑 원장은 잠 3:5-6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 너는 법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말씀을 보았듯이 성령이 함께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공통점은 본심이라면서 이는 매우 중요하다 했다. 본심이란 겉모습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본심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대인관계에서 본심이 통한다는 것은 그 인격이 변화되었다고 하겠다. 하지만 본심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대인관계 있어서 그 인격은 별볼일없으며 대인관계에 실패자라고 본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본심이 있으심을 알 수 있다. 예

레미야 애가 3:33절에서 “하나님이 인생에게 고생시키고 근심하게 하는 것은 본심이 아니라”고 하셨다.

신구약 말씀을 통하여 보면 하나님의 본심을 잘 알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시킨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땅에 들어가게 하는 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 복된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였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아야 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4시까지 열리고 있는 예수사랑치유대성회를 통해 목회자가 변화되는 게 시급하다. 목회자의 가슴이 성령의 불로 뜨겁게 불타야 교회를 살리고 양들을 살리는 길이라고 했다. 또한 목회자의 본심이 변화되는 데 있어 생각이 바뀌고 영적인 눈을 떴을 때 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피력했다.

예수사랑치유대성회는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에서 매주(화) 오후 2시~4시까지이며, 사명자 영성세미나는 기독교회관 건너편 예수사랑치유원(3층)에서 매주(화) 오후 2시, 9시에 예를 드리고 있다. 영광집터에서는 매주(화, 목, 금) 오전 11:30~오후 4시까지 중식을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사무총장 이선한 목사(우주영광교회) 010-8291-8081번이다.

## 와 보라!

# 『예수 사랑 치유 대성회』

##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 성령의 권능!

### 매주(화) 오후 2시 & 한국기독교교회관(2층)

## 사랑하는 자여!

### 네 영혼이 잘 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요삼 1:2)

주관 : 예수사랑후원회 / 주최 : 백만성도준비위원회  
삼만교회 후원 및 백만성도 대성회를 위한(매주 (화) PM 2시~4시까지)  
연락처 사무총장 : 이선한 목사(010-8291-8081)

### 대성회 안내

- 일시** 매주(화) 밤 - (금) 밤까지  
오후 2시 / 오후 9시 (주일예배 : 오후 2시, 7시)
- 강사** 예사랑 원장 (목회자, 평신도 누구나 참석)
- 장소** 예수사랑치유원(한국기독교교회관 맞은편 3층)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18(효제동301-2)
- 교통** 서울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 3번 출구 나와서  
120m 직진, 효제루 3층(예수사랑치유원)



靑松 건강칼럼(980)... Cholesterol Day

# 새해에는 명상(瞑想)을...



靑松 박명운 박사

(보건학박사, 한국보건영양연구소 이사장)  
지저스타임즈 논설고문  
대한보건협회 자문위원

근하신년(謹賀新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화병(火病)과 명상(瞑想)

화병(火病)으로 고생하는 한국인들이 많다. 현재 정신과(Psychiatry)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진단 체계(DSN-IV)에서 ‘화병’을 로마자로 ‘Hwabyeong’으로 표기하고 문화 관련 증후군(culture-bound syndrome)의 하나로 정의하고 있다. 화병은 우울증과 같이 주변 환경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나, 질병의 발생이나 증상의 출현에 한국 특유의 문화적인 배경이 영향을 준다.

즉 분노(憤怒)와 같은 감정이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을 스스로 억누르고 내면화하게 되면서 억압된 감정이 신체증상으로 나타난다.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금방이라고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기도 하며, 숨 쉬는 것이 답답하고 가슴이 뛰는 증상이 생기기도 한다. 몸 여기저기에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우울감이 심해지면 자살에 대한 생각이 증가한다.

“우리 사회에 화가 너무 많다” 대한불교조계종(曹溪宗) 종정(宗正) 성파(性坡·85) 스님이 조선일보 인터뷰(2024.12.16.)에서 한 말이다.

스님은 “모두가 진심(真心·성내는 마음) 덩어리이다. 상대를 잡아먹으려 하고 적(敵) 중의 적으로 생각한다”며 “타협하고 경청하는 인성 교육(仁性敎育)과 인욕(忍辱·욕된 것을 참음)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화를 다스리는 방법은 인욕이며, 인욕은 자꾸 연습하고 훈련하고 복습해야 한다.

성파 스님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인성교육이라고 강조한다. 인성

이 메달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타협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아집과 배타성이 강해지면서 타협과 경청이 부족해졌다. 타협이 없으면 공존이 안 된다. 인간은 인륜(人倫)이 있는데 가정이 있고 이웃이 있고 사회가 있고 국가가 있고, 그런데 그 질서가 무너지고 내가 죽든지 말든지 나만 살면 된다고 하면 모두가 망한다. 공존(共存)이 아니라 공멸(共滅)이다.

현대사회는 과거 어느 시기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늘 바쁘게 살면서 쉼 없이 달려가는 일상 속에서 종종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며 불안감에 휩싸이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명상(冥想)에 관심을 갖게 된다. 명상은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의 피로한 마음을 달래고, 정신적 안정을 찾기 위한 실용적 수단이다.

명상의 역사는 고대 요가(Yoga)나 종교적 맥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명상에 대한 가장 초기의 언급은 인도의 힌두 베다(Hindu Vedas of India)에서 볼 수 있다.

기원전 6~5세기경에는 네팔과 인도의 힌두교, 자이나교(Jainism), 초기 불교뿐만 아니라 중국의 유교와 도교를 통해 다른 형태의 명상이 이루어졌다. 알렉산드리아 필로(Philo of Alexandria)는 관심과 집중을 포함하는 영적 훈련을 썼다.

‘요가(Yoga) 명상법’은 기원전 2세기경 인도의 요기(요가 선생) 판타잘리가 편찬한 요가 경전에 근거를 두고 있다.

요가의 목적은 마음의 동요가 인간 존재의 고통의 씨앗이므로 무엇보다 먼저 마음의 동요를 멈추고 제어함으로써 삼매(三昧)의 경지에 이르려는 것이다. 삼매의 경지란 마음이 완전히 비교 대상만이 빛을 발하는 상태이다.

1971년 클라우디오 나란호(Claudio Naranjo)는 “명상이라는 단어는 명상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도록 서로 충분히 다른 다양한 관습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말했다. 대중적인 용법에서 ‘명상’이라는 단어와 ‘명상적 인 관행’이라는 문구는 종종 많은 문화와 전통에서 발견되는 광범위하게 유사한 관행 또는 관행 집합을 지칭

하기 위해 부정확하게 사용되었다.

명상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어려운 점은 여러 다양한 전통의 특수성을 인식해야한다는 것이다.

명상을 수행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명상의 전통과 이론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서로 멀리 떨어져서 성장해 온 다양한 전통들 사이의 차이점은 더욱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테일러는 특정한 신앙(예를 들어 힌두교 또는 불교)을 기준으로 하여 명상을 정의하였다.

‘불교(佛敎)명상’의 목표는 초월을 통해 열반(涅槃)에 이르는 것이다. 열반은 가장 심오한 경지의 평정 상태로 집착 대상이 없는 각성 상태이다. 열반에 이르는 여덟 단계의 길인 팔정도(八正道)는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진전, 정념, 정정(正定)이다.

팔정도는 불교 수행자가 닦아야 할 세 가지 배움인 삼학(三學)과 연결할 수 있다. 삼학은 불교명상의 핵심으로 삼독(三毒: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극복하고 애착, 혐오, 착각, 이기심과 같은 온갖 헛된 생각을 끊어 버리는 것이 목표이다.

기독교에서는 ‘meditation’을 ‘묵상(默想)’이라 번역하며, 성경에 나오는 구절들을 속으로 읊미하며 기도하는 태도이다. 구체적인 실천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성경 구절이나 기도문 구절을 단순하게 외우면서 머리를 비우고 그 내용에 가라앉는 방식과 머리를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상상하거나 분석하며 내용을 파고드는 방식이 있다.

현대의 명상법으로 전통적 요가나 불교명상 외에도 건강 증진과 스트레스 대처에 효율적인 자기조절 기법으로서 명상수련법이 많이 소개되고 있다. 즉 초월명상, 벤슨(Benson)식 이완반응법, 캐링턴(Carrington)의 임상 표준명상 등이 여기에 속한다.

현대적 의미의 명상은 마음을 집중해서 얻게 되는 신체적 심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대체의학(代替醫學, Alternative medicine) 또는 심리치료의 성격이 강하며, 전통적 의미의 명상은 명상을 지도하는 수행단체나 종교단체의 이념과 관계가 깊다. 우리나라의 대형병원에는 암치료에 명상의 유익한 효과가 의학적으로 검증되어서 암환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명상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서울대

학교 암병원에서 암 환우(환자)를 위한 ‘나를 돌보는 마음챙김 명상수업’은 매월 2, 4째주 화요일 11시~12시에 진행된다.

10명이 정월인 수업에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명상에 대한 적극적인 열기가 높다. 명상수업 참가자는 내가 나를 알아주는 것, 그리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못 볼 때는 써클안의 모두가 거울이 되어서 있는 그대로를 ‘그렇구나’ 알아주는 것, 그것이 나를 돌보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말한다.

암 환자들은 힘든 과정을 거쳐 치료를 마치고도 재발이나 전이의 위험에 대해 항상 불안해한다. 불안함이 심해지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을 실천하는 것이 좋다. 환자들은 ‘마음 근육’을 키워 스스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국립암센터 연구에 따르면, 유방암 환자의 4분의 1이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한다.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 아무런 왜곡 없는 순수한 마음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초월(超越, transcendence)라고 하며, 이를 실천하려는 것이 명상이다. 명상은 스트레스 관리, 학습 향상, 건강 증진, 경기력 향상, 약물중독 치료, 심리 치료, 습관 교정, 종교적 영성 개발, 자기 수양과 같은 다양한 효과를 가져 온다.

명상을 기법으로 보거나, 상태로 보거나에 따라 명상 연구가 달라진다. 기법으로 보면 요가, 참선, 사념처(四念處), 초월명상(TM)과 같은 인도(印度)에 기원을 둔 전통적 명상법, 단전호흡과 같은 호흡 수련법, 태극권(太極拳)과 같은 동적 명상법, 미국에서 유행한 벤슨(Benson)식 이완반응법(RR), 캐링턴(Carrington)식 임상 표준명상법(CSM)이 있다. 명상의 내적 과정에 초점을 두면 집중명상(concentrative meditation)과 통찰명상(insight medita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명상의 기법이 다르면 정신·생리적 변화나 효과도 달라진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명상법에는 호흡명상, 자애(慈愛)명상, 마음챙김 명상 등이 있다. ‘호흡명상’은 누구나 언제라도 시도할 수 있으며, 마음이 불안하거나 생각이 많을 때 효과가 있다.

알거나 서서 자연스런 호흡을 하면서, 들숨과 날숨을 코끝에서 느낀다. 호흡에 주의를 두고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다.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지금 내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애(Loving-kindness)명상’은 행복하기를 바라고 고통이 없기를 바라

는 마음을 기르는 명상이다. 분노나 짜증이 나기 전에 미리 연습해두면 분노를 대처하는 마음의 근육이 강해진다. 최근 정신신경내분비학 분야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자애명상이 우리 몸의 세포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텔로미어(telomere)이 길이는 세포 분열을 통해 점진적으로 단축되지만, 텔로머라이즈(telomerase) 효소에 의해 보충되거나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마음챙김(mindfulness) 명상’은 현대 명상의 대표적인 방법이 되었다. 마음챙김 명상은 기본적으로 통찰명상에 속하므로 특정한 대상을 고정시키지 않고 일상생활의 경험에서 마음챙김을 수행한다. 마음챙김에는 일곱 가지 태도 요인이 있다. 즉 비판단(non-judging), 인내(patience), 초심자의 마음(beginner’s mind), 신뢰(trust), 비경쟁(non-striving), 수용(acceptance), 비집착(letting go) 등이다.

‘호흡 마음챙김 명상’은 마음챙김 명상의 특수한 형태로 마음챙김의 대상을 호흡 감각에 고정시키고 하는 명상이다. 호흡 마음챙김 명상은 어떠한 자재에서도 할 수 있지만 앉은 자세로 많이 한다. 등을 적절히 펴고 어깨를 충분히 이완시키는 것은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호흡은 자연스럽게 하며, 인위적으로 호흡을 통제하지 않는다.

명상은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다. 기본적인 명상 방법은 (1)편안한 자세: 의자에 앉거나 바닥에 앉아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와 목의 긴장을 푼 상태에서 시작한다. (2)호흡에 집중: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자신의 호흡에 집중한다. 호흡을 통해 현재 순간에 몰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3)생각 관찰: 명상 중에는 다양한 생각이 떠오를 수 있다. 그러나 그 생각에 휘말리지 않고, 그저 지나가도록 내버려 둔다.

명상은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유용한 도구일 수 있다. 2025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매일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명상을 실천하면, 회복탄력성과 삶의 풍요로움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

현대인의 일상생활이 대뇌(大腦) 좌반구의 개발에 편중된 것과 달리 명상은 우반구가 개발된다는 주장도 있다. 명상의 효과는 꾸준한 실천에서 나타나므로 매일 시간(10~20분)을 정해 실천하도록 한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 호세아 강해① 호 1:1~3절 [1] |

## 호세아에게 임한 주의 말씀 음란한 아내를 얻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호 1:1~3절

“유다의 왕들로  
는 웃시아, 요담,  
아사스와 히스키  
야의 시대요, 이스  
라엘 왕으로는 요

정기남 목사  
편집인



아스의 아들 예로보암의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라. 2 호세아를 통한 주의 말씀의 시작이라. 주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얻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는 그 땅이 주로부터 떠나 크게 행음하였음이니라.” 하시더라. 3 그러므로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그녀가 임신하여 그에게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호세아 1장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 말세 중의 말세라고 들 합니다. 세계적으로 전쟁과 산발, 홍수, 지진, 허리케인, 또는 토네이도 일명 회오리바람 등으로 미국과 중국 등 엄청난 재난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 가고 있으며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신앙생활이 굳건해져야 합니다. 약한 마음 약한 믿음으로 살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자신의 영혼과 가족들의 영혼을 깨워주고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계시록에 예언된 말씀을 보면 ‘짐승의 수요 어떤 사람의 수가 등장하는데 그의 수가 육백육십육이리라’, 고 가리킵니다.

계 13:15~18절에서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러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16.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17.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18.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육백육십육이니라, 아멘!

AI 인공지능 개발로 이제는 공방이나 호텔, 백화점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움직이는 인형들이 고객들을 안내하고 무엇을 물어보면 친절하게 말도 하고 가이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타임캐스트, AI성우 목소리, 클릭한번으로 AI 오토더빙, 대화형 AI 서비스 제공으로 입 모양까지 똑같으며, 음성 복제와 29개 언어로 빠른 번역까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예컨대 사랑하는 딸의 음성까지 복제가 가능

합니다. 딸의 음성을 복제해서 아빠나 엄마하고 전화가 걸려 온다면 딸의 음성과 똑같이 때문에 다 속을 수 밖에 없습다. 이를 이용해 보이스피싱까지 하게 된다면 당할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적그리스도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입력해 주니 그 짐승의 형상이 말을 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게 되는 데 만일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그러한 자는 그 짐승의 형상에게 무참히 죽임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다음호로 이어집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이규필 목사  
(홍신대학 이사장)

**동천교회**

주일에 배 안 내

주일대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수요기도회 오후 7시30분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시구약예배(금) 각 구역별로  
세벽기도회 오전 5시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94  
☎02)854-1326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전예희 목사

**신광교회**

주일에 배 안 내

예배 오전 9시 1부  
오전 1시 2부  
오후 2시

수요예배 : 오후 7시  
금요철야 : 오후 9시  
새벽예배 : 오전 5시

인천시 부평구 부개1동 396-79  
☎ (032)505-3351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조영남 목사

**시온교회**

주일에 배 안 내

주일오전 11시 30분  
주일오후 2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8시 30분  
금요예배 오후 8시 30분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39-2 (현대프라자 301호)  
☎070-7501-2584 H.P 010-5355-2584  
다음카페 http://cafe.daum.net/choym.com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유순욱 목사

**조에 교정선교회**

조에/생명살리는 교정선교

청송교도소  
청주교도소  
춘천교도소  
직훈(직업훈련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능곡로 36(2/3), 3동 101호(한양동, 우성아파트)  
☎(070)8632-6993 H.P 010-3035-5704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강대일 목사  
(합동보수증정교회장)

**평안교회**

주일에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서울시 중랑구 상봉 1동 40-5  
☎ (02)433-0291(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백영자 목사

**금천시온교회**

주일에 배 안 내

주일오전 10시30분 오후 2시  
새벽예배 6시  
수요예배 저녁 7시30분  
금요예배 저녁 7시30분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24길 112(츠시홍동)  
H.P 010-9600-5028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서재식 목사

**풍성한교회**

주일에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경기도 시흥시 윗대야 2길 5  
H.P 010-5660-8575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유재형 목사

**제자교회**

주일에 배 안 내

주일날예배 오전 11:00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삼로 610 1층  
☎031-332-5008



대한예수교  
장로회

視聽牧師 서명범

**예수패밀리처치**

주일에 배 안 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11시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5길 42 원앙마을 부영아파트 116동 206호  
H.P 010-8268-0091, 010-3710-9119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마순덕 목사

**사랑하는교회**

주일에 배 안 내

주일날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01: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매주 금 오후 03:00, 08:00

전남 무안군 일로읍 무전길 24  
☎061) 281-1671 010-4630-0091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장한욱 목사  
(전리종교회장)

**주사랑교회**

주일에 배 안 내

주일대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7시30  
새벽예배 새벽 5시  
금요철야예배 밤 9시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화로 10, 701호(내손동)  
홈페이지 http://jicn.kr ☎031)424-7621, H.P 010-4436-7060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김관호 목사

**세향교회**

주일에 배 안 내

주일 오전 11:00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철야 오후 8:00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79  
H. 010-7788-0091 T.032-612-0190



▶ **계시록 15장 강해(78)**

# 천 년 이후 잠시 풀려나게 되는 마귀의 정체

(지난번에 이어서)

. 계 20:1~10절

1. 또 내가 보니

요한계시록 19장에서 깨달은 바와 같이 [계 19:11]에서 재림하시는 주님과 또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나오며 이것이 바로 [계 19:7]에서의 어린양의 혼인잔치입니다. 더불어 대적하는 무리를 심판하시는 것도 따르게 되는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때,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진 천사

이것은 천사가 실제 손이 있어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는 육신이 없기에 손이 있을 수 없으며, 이는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권세를 주신 것을 말합니다. 바로 끝없는 깊은 구렁, 무저갱의 열쇠와 무저갱에 마귀를 결박하여 가둘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깨달은 바와 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대적하는 모든 무리는 주님의 임에서 나오는 검은로 멸망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리의 대장이었던 적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와 함께 지옥으로 직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귀는 지옥에 바로 보내지 않고, 천 년 동안 무저갱에 가둬두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재림하셔서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재림하시면 지상에는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주님을 모시고 거주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마귀로 인한 죄가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무저갱에 갇혔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로 인한 사망, 저주가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상고한 바와 같이 [계 12장]에서 천년왕국의 백성은 예비처에서 휴거한 자들로 그들은 부활이 아니라 혈육의 몸 그대로 천년왕국에서 사는 것인데 이렇게 혈육의 몸으로 살고 있으나 그들에게는 죄나 사망, 저주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롭게 세워지는 천년왕국의 특징입니다.

3. 천 년 이후 잠시 풀려나게 되는 마귀  
이렇게 무저갱에 천 년 동안 갇혀 있던 마귀는 잠시 풀려나 또다시 천년왕국의 백성들을 미혹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때 마귀 유혹에 넘어지는 천년왕국 백성들은 불사름을 당하게 되는 것이며, 반면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기는 천년왕국 백성들은 상급과 영광을 받게 되는

강해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담임



것입니다.

이는 미혹 당하는 자들을 위함이 아니요, 상급과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마귀를 천년왕국이 끝나기 전, 잠시 풀려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천 년 동안 마귀 없이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왕들과 함께 가르침을 받으며 살았으나 그중에는 마귀의 미혹을 받아 넘어지는 자도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갇히게 되는 무저갱은 어디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무저갱, 음부, 지옥에 대하여 확실하게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 17:8]에서 나오는 짐승,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가 나오는데 이는 [단 8:9]에서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말하는 것으로 그는 '작은 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자신을 신격화하여 우상 숭배하게 했던 실존 인물입니다. 그가 죽어서 현재 있는 곳이 바로 무저갱입니다. 그러나 [단7:8]에서의 '작은 빨'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가 [단 8:9]에서의 '작은 빨'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이 성전을 더럽히며 잔인무도한 짓을 하는 자임을 [계 17:8]을 통해 연결해 주시면서 분명하게 말씀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적그리스도는 죽어서 무저갱에 가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지옥에 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나 마귀, 온갖 더러운 귀신들, 또 불(火) 백(禦)자들은 무저갱에 가는 것이고, 이들은 지옥 갈 자들로서 지옥에 가기 전에 무저갱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부는 지옥으로 직행하게 되는 무저갱과 다릅니다. 백보와 심판 때에 음부에 있는 자들을 그곳에서 꺼내어 상급 심판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믿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를 보는 것이고, 열매를 맺었다면 거기에 따른 상급과 영광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이 백보와 심판

을 지옥과 천국에 가게 하는 심판이라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자들은 [창 3장]에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 다. 이를 공(公)심판이라고 하는데 이 심판을 이미 받은 것이고 지옥에 직접 가는 집행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보와 심판에서는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의 심판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믿음으로 열매를 맺었느냐에 따른 상급과 영광을 주시는 심판인 것입니다.

반면 믿음으로 열매를 한 톨도 맺지 못한 자들은 마치 벌거벗은 자와 같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며 그러나 이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는 음부에 있으면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그는 백(禦)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를 백보와 심판 때 음부에서 꺼내어 심판받게 하고 그 후에는 하늘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음부입니다.

**천 년 이후 잠시 풀려나게 되는 마귀 심판이 주어진 보좌에 앉은 자들**

[마 19:28]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때는 바로 예수님이 새롭게 보좌에 앉으실 때,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때를 말하는 것이고, 이때 제자들에게 열두 보좌에 앉아 심판할 권세를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 4:4]에서 이미 깨달은 바와 같이 보좌 주위에 스물네 좌석이 있고, 거기에 흰옷을 입은 스물네 장로가 앉아 있으며 그들의 머리에는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썼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흰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쓴 순교자들을 말하는 것이며 또 144,000의 한만 날에 사역하는 남녀 종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을 통치하더라**

여기서 '살아서'라 함은 원문으로 [에제산]으로 [요 11:25]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의 '죽어도 산다.'는 것과 같은 단어로,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자들이 다시 부활한다는 뜻을 말하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계 20:4]에서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을 통치한다는 것은 그들이 죽었다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을 통치한다는 것이며 이들은 바로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게 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바로 순교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의 표를 이마나 손에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계 13:1]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일곱 머리 열 팔 짐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7년 환란이 시작되는데 순교자들은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의 표를 받지 않아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계 13:15]에서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짐승과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죽인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순교는 특별한 은사가 있고, 특별한 자만이 한다고 하는데 그제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환란이 시작되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자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후(後) 3년 만에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 19:14]에서 흰말을 타고 흰옷을 입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 바로 어린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가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신부는 순교를 통해 됩니다. 그리고 순교는 환란이 시작하여 두 증인이 1,260일 예언하는 동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이 끝나면 더 이상 순교는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며 이는 다니엘서에서도 분명히 계시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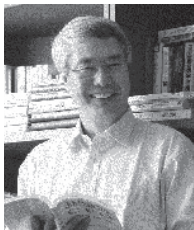
그러므로 [계 20:4]에서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 베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의 표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후(後) 3년 환란이 시작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입니다. 그러므로 짐승 표는 환란이 시작되면 바로 실시되는 것이고, 그 표의 상용화를 위한 준비가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짐승 표를 받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짐승표를 이마나 손에 받으면 결례나 여러 부분에서 편리하고 편의성을 강조하여 자발적으로 받게 하다가 결국 이것을 끝까지 자발적으로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강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성경으로 본 건강학<96>**

## 진정한 기도의 체험

강성주 박사  
(사랑의클리닉)



사람은 사망의 침입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진짜 기도가 나온다. 그 상황이 되어야 평소에는 무미건조했던 기도가 진지해지기 시작한다.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명백관화하게 드러난다. 고통 속에서 비전이 더욱 확실해지고 깊어진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등대의 불빛이 더욱 선명해진다.

사람이 왜 게을러지는가. 비전과 열정이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게으름에 대한 처방은 부지런함에 대한 결심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불꽃을 발견하는 것이다. 평탄한 길에서는 이기심과 야망이 빛을 발하지만 고통 속에서는 비전과 열정이 불타오른다. 고통은 하나님의 매가폰이다. 보통 때는 희미하게 들리던 하나님의 말씀이 고통을 받을 때는 엄청나게 큰 소리로 내게 들려오는 것이다.

불 같은 말씀으로, 방망이의 충격으로 내게 들려지는 것이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나,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역대 본과 1학년 때의 일이다. 어머니가 경영하시던 제과점이 경영악화로 부도가 났다. 문제는 채권자들이 어머니를 끌고 기숙사로 몰려온 거시다. "너희 집은 이제 끝장났으니 소망이 없고, 네가 의사가 되면 대신 갚으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약속어음을 쓸 것을 요구했다. 울고 있는 어머니가 너무 불쌍해 어음을 써줄 수밖에 없었다. 정말 가슴아픈 일이었다.

3년 후 의사가 되자마자 채권자들은 그 어음에 명시된 돈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전공의 시절 월급이아라 40~50만원 정도인데 수천 만원에 달하는 채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해 온 것이다. 재판 중 증인으로 나오셨던 어머니가 "너희가 어찌 내 아들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빚진 당사자로 아난데..."라고 부르짖다가 실신을 하셨다.

충격을 받은 나는 속으로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정말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던 일이 내게 생기다니... 오 주여!"하며 깊이 탄식했다. 이 일을 계기로 주님이 주신 교훈이 많았다. '인생은 준엄한 것이다.' '빛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 '심은 대로 거둔다.' '불행과 행복은 물려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순간에 주님 주신 꿈과 비전이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고 확고해짐을 체험할 수가 있었다.

수년 전 가을 수원에서 세계적인 테너인 보첼리의 음악회가 있었다. 조수미와 정명훈이 함께한 그 음악회는 내게 큰 감동을 주었다. 12세 때 사고로 시각장애인이 된 보첼리, 그후 그는 자신의 인생에 갑자기 그 역경을 넘어서 극복하고 법학박사와 변호사가 되었다.

평소에 아마추어로 성악을 했던 그가 우연히 루치아노 파라로티의 대타로 무대에 섰다가 그만 가능성을 인정받아 버린 것이다. 그 일을 계기로 성악가로 본격 데뷔하여 지금은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며 여러 나라를 찾아다니며 공연을 하게 된 것이다.

나는 보첼리의 음성을 잊을 수가 없다. 깊은 영혼의 세계에서 울려나오는 맑은 목소리... 다른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고통의 심연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음색...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생각했다. 그가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라고. 보첼리는 마치 중년에 청각장애인으로 불후의 명작을 발표한 악성 베토벤의 천재적 음악성을 재현한 것 같았다.

(저작권자 © 크리스천비전 & 지저스타임즈 cjtn 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목사 **황덕광**

**새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2부 예배 오후 1시

**수요 예배** 저녁 7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9길 61  
02)324-4680-323-9106, FAX 02)325-9091

『합동보수신학학술원』



성경신학, 실천신학 중심의 실천교육  
대학/2년 8학기 대학원/1년 6개월 6학기  
(주.아.사이버(월.화.수.목.금.토)/수시모집  
연구원/리더쉽 과정, 학술원/교수양성  
설교전문대학(단기 12주/정규 1년/전문 2년)  
서울본원/서울금천구시흥대로97(윙풍1동 216호)  
부산분교/부산 수영구 광서로14-1  
분교(수원.인천.대전.대구.광주.청주.전주.울산.창원.춘천.제

**총장 : 차요한 목사(Ph.D.) HP:010-5341-1239**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목사 **최정수**  
부목사 **이성현**

**일상교회(日常教會)**

**예배안내**

본 예배 주일 11시 주일 오후 주일 14시  
수요 예배 19:30 새벽 예배 매일 06시  
유.초등부 중.고등부 주일 13시  
청년 예배 주일 10시  
직장 예배 매일 8시30분 에이저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정로 159번길 10. 3층  
Tel:031-216-2089 / 010-2252-3352

**행복의집,(시온노인요양원)**  
**사회복지법인 동훈복지재단**



대표이사 **곽동훈**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등급편정·1급~3급차 환별)

강원 삼척시 근덕면 방재로 411. (법인사무국)  
T. 033-576-0202 (070-8986-1009, 070-8986-1004) M. 010-7580-1004  
F. 033-576-0236 (0504-091-4234) E. dhwf1004@naver.com

**열두광주리 기도원**



담임목사 **김명호**

새 능력 새 은혜 새 역사  
성회 신청접수 합니다.

☎ 010-8411-0191  
충남 세종시 연서면 도산교북로 438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이혜진** 목사

**벧엘중앙교회**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00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383-21  
☎032)667-7147 H.P 010-3287-1500

한국기독교  
장로회



담임 **오종실** 목사

**평안하고 든든한교회**

**주일 예배 안내**

주일오전 : 1부예배 오전 9:30 2부 오전 11:30  
주일오후 : 저녁 8:00 수요일예배 : 저녁 8:00  
금요일기도회 저녁 : 8:0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40  
(토. 주일 개인별 자유롭게)

충남 홍성군 홍북읍 자경로51 ☎ 041)631-9146

심만교회 후원 및 백만성도 대성회를 위한  
**예수사랑성령대성회**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 성령의 권능!**  
**주간 : 예수사랑후원회**



**원장 예사랑 목사**  
매주(화) 오후 2시  
사무실: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63(센트럴씨티뷰 103호)  
예배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19(연지동)136-46)  
(한국기독교회관 2층, 02)763-9746)

**준비위원장: 이 규 목사(010-2925-9146)**  
**사무총장: 이선한 목사(010-8291-8081)**  
**후원계좌: 301-0101-7218-41(농협/영광교회)**

**강릉산성그리스도의교회**



담임 **최낙현** 목사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오후 1시 30분  
오후 2시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오이골말길58-20  
☎ (033)655-0691, 0692 H.P 010-6409-0091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목사 **김복래**

**꿈과희망교회**

**예배안내**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시  
주일 오후예배 오후 1시 30분

경기도 광명시 영우로 36(구:소화2동 950-15)  
H.P 010-9852-3927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임명숙** 목사

**삼성중앙교회**

**주일 예배 안내**

주일 낮 예배 : 주일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 오후 2시  
수요예배 : 오후 7:00  
금요철야예배 : 오후 7:00  
매일저녁기도회 : 오후 8:00

경기도 안성시 구례골길 213-8 전화 : 010-4087-3468



# 웨신 호남노회 WPTS Chapel 임직감사에배



▲ 단체사진



말씀선포 대학원장 정종욱 목사



축도 허창범 목사

예장 웨스트민스터바울신학교 부속교회(총장 허창범 목사)는 지난 10월 26일(토) 오전 11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로 162 소재 WPTS Chapel 본당에서 허창범 목사 인도로 임직감사에배를 드렸다.

이날 유한주 목사(웨신, 호남노회 부노회장)의 기도도와 허성준 목사(웨신, 호남노회 회의록서기)가 성경 왕상 3:4-14절을 봉독하고, 김재진 목사(WPTS Chapel)의 특송이 있었다.

이어 “하나님을 감동시킨 솔로몬”이란 제목으로 WPTS대학원장 정종욱 목사가 복된 말씀을 선포했다. WPTS Chapel 성도를 대표하여 봉헌특송을 가졌

으며, 봉헌기도에 양연석 목사(호남노회 감사), 제2부 임직식에 허재준 목사(WPTS Chapel)의 사회로 허창범 목사(WPTS 총장)는 두 임직자의 서약과 교인들에게 서약이 있는 후 안수집사 장립과 안수집사 취임식에서 안수기도와 약수례 공포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어 임직자를 위한 기도를 고경자 목사(WPTS이사), 총장 허창범 목사는 임직받은 강기석 안수집사, 지유섭 안수집사 취임을 축하하며 임직패 및 임직증서를 수여했다.

제3부 축하 및 인사에 허재준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어 격려사에 김사라 목사(호남노회장). 권

면에 마순덕 목사(웨신, 증경부총회장), 축사에 정기남 목사(지저스타임즈 및 cjtn tv 방송대표) 등이 나섰다. 이어 강기석 안수집사, 지유섭 안수집사가 각각 인사를 하고, 황승룡 안수집사(WPTS총괄운영위원장)가 광고를, 총장 허창범 목사의 축도 후 김삼순 목사(호남노회회계)의 오찬 기도도로 마쳤다.

한편 자세한 것은 영상을 참고하시면 지저스타임즈 인터넷방송 CJTN TV(<http://jntv.kr>)은 해로운 영상을 시청할 수 있음, 또한 제2방송 cpj tv(<http://cpj.kr>)를 참고하세요



임직자

# 푸른솔교회 임직감사에배 명예권사 2人 권사취임 5人



▲ 축하 단체 기념사진



말씀선포 웨신총회장 김안식 목사

푸른솔교회 임직감사에배 명예권사 2人 권사취임 5人 대한예수교장로회 푸른솔교회(담임 김사라 목사)는 지난 11월 30일(토) 오전 11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로 11번안길 소재 교회 본당에서 담임 김사라 목사는 조봉순, 김영자를 명예 권사로, 정하나, 윤경례, 신금향, 박미향, 정미연 등을 권사로 임직하고 공포했다.

1부 경건예배는 최혜순 목사(호남노회서기)의 인도로 시작되어 기도예 유한주 목사(호남노회 부노회장), 허성준 목사(회의록서기)는 성경 딤후 2:20~21절을 봉독하고, 푸른솔교회 성도들의 은혜 넘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웨신 총회장 김안식 목사는 “귀히 쓰임 받는 그릇”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모인 성도들과 가족들 모두에게 큰 감동을



권면 총장 허창범 목사

주었으며 은혜와 큰 축복의 자리가 되었다.

이어 임직자 일동의 아름다운 하모니로 봉헌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며, 김삼순 목사(호남노회 회계)가 봉헌기도를 드렸다.

2부 임직식에서 김사라 담임



담임목사 김사라

목사는 문답을 갖고 임직자들의 소개가 있었으며, 푸른솔교회 임직자들과 교인들을 향해 오른손을 들어 서약을 다짐하고, 김 목사는 권사취임을 위한 기도도를

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교회



▲ 임직자 가족들과 함께

회의 권위로 ‘조봉순 김영자 정하나 윤경례 신금향 박미향 정미연’ 씨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푸른솔교회 명예권사와 권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하여 아멘 함으로 영광을 주 하나님께 올려 드렸다.

이어 김사라 담임목사는 임직자들에게 임직패 및 임직증서를 수여하고, 꽃다발과 선물을 증정했다. 따라서 푸른솔교회를 허창범 목사(당시 담임)와 함께 개척하고 섬기며 봉사에 온 가운데 경기도 오산으로 이사 한 안종기 장로에게 공로패를 수여 했다. 허창범 목사는 김사라 목사를 푸른솔교회 담임목사로 취임케 하고 원로로 추대받았다.

제3부 순서로 축하 및 인사에서

김사라 목사(호남노회장)의 사회로 권면에 허창범 목사(웨신증경총회장), 마순덕 목사(웨신증경부총회장), 축사에 임예성 목사(웨신증경부총회장), 정기남 목사(웨신총회증경부총회장/지저스타임즈 대표), 김복래 목사(웨신부총회장/총무), 임직자 인사로 윤경례 권사(임직자 대표), 광고 함용호 장로(호남노회부서기), 축도 허창범 목사(웨스트민스터바울신학교 총장), 오찬 기도예 양연석 목사(호남노회감사), 순으로 임직식예배를 마쳤다.

□먼저 사과문을 올립니다. 아내와 함께 교통사고로 5주 만에 이 기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치료받고 있으며, 아내는 아직도 아파합니다. 위하여 기도부탁드립니다. 푸른솔교회(호남노회장) 김사라 목사님과 모든 분들에게 다시한 번 사과드립니다.

참고 / 지저스타임즈 cjtn tv(<http://jntv.kr>)에서 영상을 보시면 은혜가 넘칩니다.

## 웨신총회 웨스트민스터바울신학교학술원 신입·편입 입학생모집

**원장  
허창범 목사**  
(신학박사, 교육학박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웨신총회는 한국교회총연합회(한국교)소속으로 본 웨신총회신학 웨스터민스터 바울신학연구원에서는 사명이 있으나 시간, 연령, 경제, 환경적인 면에서 제약이 있는 신학생을 모집합니다.

1. 본교 졸업자는 총회에서 실시하는 강도사 및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 안수 받을 수 있음.
2. 본교 졸업자는 미국의 Cumberland University와 MOU에 의해 적절한 절차를 거쳐 동일한 학위 취득가능
3. 상담학과 졸업자는 신라성당사(1, II급), 가족상담사(1, II급), 인생지도교육사(1, II급)자격증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자격증을 받을수 있음.
4. 우수한 교수진이 강의함.
5. 미국 U.S Mission Point Academy와 협력하여 선교사 파견 및 목사안수가능

**웨신총회신학  
웨스트민스터바울신학연구원**  
Westminster Paul Theological Seminary

광주 광산구 신창로162-30(5층)  
학장 : 김사라 박사(010-8665-5522)

※ 방학 없이 계절학기 포함 1년 4학기제임  
※ 입학문의와 상담  
※ 수시입학가능

| 과정   | 학과     | 기간     | 학위     |
|------|--------|--------|--------|
| 학부과정 | 신학     | 2년 6학기 | B.T    |
|      | 기독교상담학 |        | B.C.C  |
|      | 기독교교육학 |        | B.C.E  |
| 연구과정 | 신학     | 1년 6학기 | M.Div  |
|      | 신학     |        | M.Miss |
|      | 기독교교육학 | 1년 4학기 | M.C.C  |
| 학술원  | 신학     | 1년 6학기 | Th.D   |
|      | 목회학    |        | D.Min  |
|      | 기독교상담학 |        | D.C.C  |

※ 연료명: 전광과 선교대학원공인 미국 C.U에 신설

국제협력교육기관: 미국 Bethel College & Seminary 연WPTS 학술원장 / U.S Mission Point Academy

## 피종진 목사 2025년 1월 국내.외 집회 일정

○ 단국대학교 총동맹지부위원장  
○ 울산대학교 56회 동문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맹지부위원장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 영이 연구원 동문회 대표교인  
○ 서울대학교(A&B)12121 동문회교인  
010-5255-7777  
Dobless3377@gmail.com

1(수) Special Blessing Event MT  
2(목) 오전 World 기독교총연합회(대표교인 피종진 목사, 이사장 정진희 목사) 010-7567-8291 장소 : 양주시 시온수영관(월장 정일본 목사)  
3(금) 오전 의정부 주님의교회(임수연 목사) 010-7721-2286 주최 : 地宜協 (이 사장 강영준 목사, 대표총재 안정남 목사)

4(토) 오전 Tent Makers Mission(대표 남보석 목사) 010-7220-0733 연합신년하례상회(장소 : 서울 여전도연합회관)  
5(주) 오후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총동맹회(김대성 동문회장 취임 - 동영상 축하메세지)  
5(주) 저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한영) (총회장 박승식 목사) 신년축복성회 장소 : 서울한영대학교(중앙 한영은 목사) 010-2009-7272

6(월) 오후 서울 주님의교회(백승수 목사)010-3065-7825 주최 : 작은자심김선교회(대표회장 양유식 목사)  
6(월)~7(월)저녁 서울 위대한 약속교회(윤재민 목사, 임미향 목사) 010-6201-8374 (사)한국복음화운동본부(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총재 김일준 목사) 총회 및 신년하례 장소 :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 010-5372-1691

9(목) 오전 제중 평화의동산(원장 피종진 목사) 신년상상축복대회 041-852-2211  
9(목) 저녁 국민일보 국부원 신년하례 및 기도회(중재 고종진 목사) 010-3899-0691  
10(금) 오전 부천전광교회 주최 : 민족목회부흥동맹의회(대표회장 임동철 목사) 010-7407-9958  
11(토) 오전 오산리교회(김현수 목사) 신년상상축복대회(위원장 김원철 목사)  
13(월) 오전 주최 : 한국기독교부흥사단제총연합회(준비위원장 김우경 목사) 010-8898-9141

14(월)~18(토) Visiting Mission Fields around the World in Thailand  
19(주) 저녁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총동맹회 김대성 목사 대표회장 취임식 예배 서산 (주)대한건설(대표 최종훈) 010-5422-3705  
20(월) 오후 주최 : 한국기독교부흥사단제총연합회(준비위원장 김우경 목사) 010-5603-4997  
21(화)~22(수) 능률선교회(임은선 목사) 010-4719-5471

22(수) 저녁 연세대학교 연부원(총재 강영선 목사, 준비위원장 김진욱 목사) 010-3443-1541  
23(목) 오전 장소 : 오산리교회(김현수 목사) 신년하례회 장소 : 서울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  
24(금) 오전 주최 : World 기독교 총연합회(이사장 정진희 목사, 대표총재 김현수 목사)  
24(금) 오후 서울한영대학교 7층 대강당 (주최 : 재미대법원 세계복음화협의회 & 국민일보(주) Special Blessing Event MT  
25(토) 새창원예교회(피은혜 목사) 구정축복성회 010-4586-8642  
27(월)~29(수) 서울성광교회 주최 : 요한선교회(단장 김동진 목사) 010-7293-3217

## 대한민국 호감도 전국 1위 협동조합 거품을 제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장례서비스  
한국 의전 협동조합 전국 지역본부 출동 1~2시간 이내

★ 상품검색: NAVER 한국의전협동조합 확인 ★ 상품검색: NAVER 밴드 한국의전협동조합 가입

### 거품을 확 제거했습니다.

무빈소 장례  
1,200,000원

기본장례 : 3,900,000  
절약 2,400,000원

고급장례 : 4,500,000  
절약 2,800,000원

### 장례비용 바로알기

**상조**

- 제단 장식 현화
- 고인 용품(관, 수의, 용품 등)
- 의전 용품(상복, 상장, 상단 등)
- 전문 인력(전문지도사, 도우미 등)
- 장의 차량(리무진, 장의버스)

**장례식장**

- 수시(시신을 바르게 하는 일 등)
- 사육료: 빈소 접객실 안치실 영습실 발인실
- 접객음식 제수용품
- 편의점 물품
- 제단 장식 현화

**장지**

- 화장장 봉안당
- 장, 자연장(수목장 잔류장 해당장 등)
- 선산 매장 평장 등
- 공인묘지 매장 봉안도 등

전병 제23-명278호  
전통 장례명장  
원주-原叔升

전통 상담 및 상품문의  
장례 행사 연주무 24시 운영  
전국 대표번호 : 1644-2542

iso9001 품질보증경영 인증 iso14004 품질환경보증 인증



## 수도침례신학교 총동문회 제14차 정기총회

### 제14차 총동문회장 최인수 목사 선출



▲ 총동문 기념촬영



수도침신 총동문회 순서자

말씀선도 권혁봉 목사

수도침신 총동문회(총동문회장 윤석현 목사, 사무총장 손영기 목사)는 지난 12월 3일(화) 오전 11시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9번길 중심교회(정운섭 목사)에서 총동문회 제4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총동문회장에 최인수 목사를 만장일치 선출했다.

정기총회에 앞서 1부 감사 예배에 김태

욱 목사(선교부장)의 인도로 시작되어 김기현 목사(재정부장)가 기도를, 인도자의 성경봉독은 고전 9:24~27, 담전 4:15, 권혁봉 목사(수도침신 전 학장)는 “달리고 싸우지만 성장은 간다”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광고에 사무총장 손영기 목사, 권면에 박종서 목사(지저스타임즈 이사장), 회장 윤석현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

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가졌다.

2부 정기총회를 갖고 신임회장에 최인수 목사(안성 공도중앙교회)를 선출하고 그 외 임원 선출은 정리가 되는데로 추후 발표하기로 했으며, 사무총장 손영기 목사(일산열린교회)는 그대로 유임되었다.

제41차 수도침신총동문회 임역원조직 회장:최인수(안성공도중앙), 수석부회장:김태욱(동문축제준비위원장, 인천두란노) 부회장:최재식(양주엘찬안), 구용희(서울강서중앙), 정용훈(하늘빛사랑), 사무총장:손영기(일산열린), 서기:이한규(천안새빛), 재무:박성선(수원성지), 전도:김기현(의정부은광), 선교:추교성(수원새희망), 교육:김갑선(부여임천제일), 사회체육:이종대(인천사도행진), 장학:제재호(화성조암중앙), 홍보:노종근(안성공도제일), 여성:이남열(인천푸른나무), 친교:이영주(김해일신), 감사:윤석현(반석중앙), 저정용(평택예목), 고문 :박종철,윤석현, 이기현, 김근중, 박종서, 김경배, 박재근, 우병식 등이다.

## 기독교선교교회연합회 선교축제 열어



인도 김태욱 목사



말씀선도 고대원 목사

사) 기독교선교교회연합회(이하 기선협 연합회장 고재욱 목사)는 지난 12월 2일 서울 구로구 부일로 19길 40, 오후 2시 연세중앙교회(윤석전 목사) 안디옥성전에서 기선협 선교축제에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자리한 가운데 1부 감사예배와 2부 콘서트를 갖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분회 대외협력국장 김태욱 목사가 1부 감사 예배에 인도를 맡은 가운데 기도예배 김중수 목사(강원 지회장/가나교회), 환영사에 연합회장 고재욱 목사, 엠 4:1~4절을 박재욱 목사(서울지회 총무/라이프미션교회)가 봉독하고, 특송에 대전지회 사모회 일동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이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는 주제로 고대원 목사(부울경 지회장/신성중앙교회)가 말씀을 선포했다. 합심기도 인도에 허도량 목사(경기북 지회장/파주벨렐교회), 구호제창에 이한규 목사(분회 교육국장/우주우리교회)가 진행되었다.

이어 축사 1.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 이윤 목사, 2. 신평식 목사(한국교회총연합 사무총

장), 3. 손태신 목사(대한제일교회), 4. 김재근 목사(주) 티지와이 대표) 등이 축사와 덕담을 나누었다.

이어 격려사에 박종철 목사(기침 증경 총회장), 분회 이사장 윤석현 목사(연세중앙교회)는 기업화원인사에 대해 진행을 맡았으며, 조만식 목사(분회 사무총장)의 광고와 윤석전 목사의 인사와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콘서트는 안미라 집사의 사회와 선교국장 최인수 목사의 기도가 있는 후 콘서트가 시작되었다. 이날 출연진은 힐웨이즈, 황규승 목사 등이며, 마침 기도예배 조은철 목사(송은교회), 이어 강태일 집사의 진행으로 경품추첨을 가졌다. 이날

윤석전 목사는 경품추첨을 통해 2억 원의 선교비, 자동차 2대 등 다양한 경품으로 많은 기선협 부흥사들과 가족들에게 선물을 안겨주고, 윤석전 목사(이사장)의 폐회 기도로 마쳤다.

참고/ 이날 촬영한 영상은 늦었지만 설교와 콘서트 등을 편집하여 방송하게 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5일 대령화물차에 의하여 추돌당하여 입원 치료 중이며, 신문 방송을 위하여 건강 회복을 위해 부족한 목회자 정기납 목사 부부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편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지저스타임즈 신문 인터넷 방송은 1. cjtn tv(<http://jtnv.kr>) 2. cpj tv(<http://cpj.kr>)에서 방영되고 있습니다. 편집된 영상은 1.2.3부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콘서트



▲ 기선협 단체사진

## 한교총 기독교 종교문화자원 보존과 활용을 위한 학술연구 심포지엄 개최

### 한국교회 인물 연구 발표 및 종교문화자원 목록화·관광자원화 보고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기독교 종교문화자원 보존과 활용을 위한 학술연구 심포지엄>이 23일(월) 오후 3시 한국기독교회관 조예홀에서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교총이 연구한 종교문화자원 목록화, 관광자원화 사업 4년차 보고와 한국기독교 조총합하였던 ‘스크랜턴(William B. Scranton)’, ‘길선주 목사와 아들 김진형’, ‘알렌(Horace N. Allen)’, ‘헨리 데이비스(Joseph H. Davies)’에 대한 학술자료 발표를 진행했다.

심포지엄 개최식에서 신평식 사무총장은 “기독교 2천년 역사 중 한국기독교

는 140년의 짧은 시간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견인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헌신한 한국 초기 사역자들과 이들의 흔적이 다양하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교총은 교파와 교단을 넘어 기독교 종교문화자원 보존과 활용을 4년째 진행하며 한국사회에 이식한 민주주의가 계속 발전하여 복음적 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을 되길 힘쓰며, 이 사업을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김종명 목사(예장백석 사무총장)는 “전문가들의 협력에 감사드리며, 이번 심포지엄이 한국교회 디딤돌이 되길 소망

한다”고 축사했고, 문창국 목사(기성총무)는 “기독교 종교문화 자원 보존과 활용을 위한 학술연구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며 대한민국 사회에 기독교의 선한 능력이 올바르게 전달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후 진행된 학술 심포지엄에서는 “스크랜턴(William B. Scranton)의 생애와 사상: 의료 선교의 이해와 적용을 중심으로” 주제로 김인수 교수(감리교신학대)의 발표와 한혜현 교수(감리교신학대)의 논찬, “길선주 목사와 아들 김진형, 김진형의 독립운동 연구” 주제로 김일환

교수(서울장신대)의 발표와 김일석 박사(임마누엘교회)의 논찬, “알렌의 선교와 외교: 갈등과 전환”의 주제로 서선영 박사(장로회신학대)의 발표와 오지원 교수(한국침례신학대)의 논찬, “헨리 데이비스의 일생과 그에 관한 연구 동향”의 주제로 양명덕 선교사(영등포산업선교회)의 발표와 정병준 교수(서울장신대)의 논찬이 이어졌다.

이번에 출판된 4명의 전기는 기존에 연구된 자료는 물론 새로운 연구자들이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실제적 연구가 부족한 ‘알렌’과 ‘데이비스’ 선교 등의 사역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출판된 전기는 신학대학 도서관과 회원교단 본부 등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한교총으로 연락하면 받을 수 있다(선착순, 택배비 본인 부담). 한편 그동안

발간된 14권은 한교총 홈페이지에서 e북과 오디오북을 찾아볼 수 있다.

한교총의 중점 사업 가운데 ‘기독교 종교문화자원 보존과 활용’ 사업은 올해로 4차 연도를 맞이하였다. 1차 연도는 수도권 소재 100년 이상 된 교회의 종교문화자원 목록화와 관광사업화를 진행하였고, 2차 연도는 충청권, 3차 연도는 호남

과 제주, 4차 연도는 강원도 지역을 탐방하고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5차 연도는 영남권 지역을 탐방하고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지금까지 발간된 선교사 전기 18권 외에도 계속해서 집필을 이어가며 한국교회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역할과 사명을 제시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 축 대한예수교 장로회 엘림교회

표어 : 모든 곳이 살아나리라(겔 47:9)

## 2025년 謹賀新年

| 엘림의 예배시간 안내 |              |
|-------------|--------------|
| 주일 1부 예배    | AM 11:00 본당  |
| 주일 2부 예배    | PM 2:00 본당   |
| 수요예배        | PM 8:00 본당   |
| 금요찬양예배      | PM 8:00 본당   |
| 새벽예배        | AM 5:00 본당   |
| 교육부(주일)     |              |
| 태영아 예배      | AM 9:00 302호 |
| 유치부 예배      | AM 9:00 201호 |
| 유초등부 예배     | AM 9:00 본당   |
| 중고등부 예배     | AM 9:00 본당   |
| 청년부 예배      | PM 8:00 본당   |



**Abraham King 목사**  
E-mail: king-415@hanail.net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70번지. 교회: (031) 224-8475. 목사관: (070) 8269-7809  
1270, Kwonsun-dong, Kwonsun-gu, Suwon-ssi, Gyeonggi-do, 441-836 Korea (FAX: (031) 226-5894)

# 대한예수교 장로회 꿈의교회

www.mokpodream.org

## DREAM CHURCH

꿈을 잃은 자들에게 꿈을 주며  
꿈을 가진 자들은 그 꿈이 이루어는 꿈의교회

### 祝 謹賀新年



주소 : 전남 목포시 산정로322-3(연산동)  
전화 : 061)277-0496 차량운행 : BUS 3번, 60번, 600번



**담임목사 이요성**

예배 안내  
주일1부예배(일) 오전7시30분  
주일2부예배(일) 오전11시  
주일밤예배(일) 저녁7시30분  
삼일밤예배(수) 저녁7시30분  
금요일예배(금) 저녁9시





# 대한예수교 장로회

# 예 복 교 회

YEBOK PRESBYTERIAN CHURCH

## 축 2025년 근하신년

표어 : 감사의 기적을 경험하라



교회: 경기도 의정부시 누원로40(장암동) Tel. 02)934-1232

| 주일에배   | 대예배                         | 1부: 오전 9시30<br>2부: 오전 1100 |
|--------|-----------------------------|----------------------------|
|        | 주일저녁예배                      | 오후 7시                      |
| 유치부    | 오전 11시                      |                            |
| 주일학교   | 오전 1시                       |                            |
| 청년대학부  | 오후 2시                       |                            |
| 중고등부   | 오후 230                      |                            |
| 수요예배   | 수요일 오후 8시                   |                            |
| 금요철야예배 | 매일 오후 10시                   |                            |
| 토요철야예배 | 토요일 오후 10시                  |                            |
| 심야기도회  | 매일 오후 10시<br>단, 주일과 수요일은 제외 |                            |



**소진우 목사 사역**  
지저스타임즈 사장 Cjntv 칼럼리스트  
한국언론부흥사업의회 명예총재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Good TV 칼럼리스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SINCE 1983.6.13

표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 축 2025년 근하신년

#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http://www.mokpojuan.com>

## 멀티사이트 교회

The Multi Site Church



담임목사 모상란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주안교회

목포주안교회 : 목포시 청호로 159(북향동) 전화/061-272-4908, 276-1006  
남악주안교회 :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 60번길 17 전화/061-287-0692  
용해주안교회 : 목포시 용해지구로 61(연산동) 삼양빌딩 301호 전화/ 061-277-0691

# 축 지타즈 / 연부협. 신년하례 감사예배 공고

**이 사장**  
  
박중서 목사

**사 장**  
  
소진우 목사

**증경이사장**  
  
홍재하장범 목사

**직전이사장**  
  
오중설 목사

**일시 장소 안내**  
일시 : 2025년 1월 10일(금) 오전 11시  
주소 : 충남 논산시 체육로74 / 장소 : 논산 한빛교회(☎ 041)736-1457  
논산 시내버스 : 801 / 802 / 803 <기독교한국침례회 한빛교회>  
안내 : 류재현 사무총장 010-3788-1130 총국이사 송영윤 목사 010-9334-4637  
차량 : 네비게이션 주소 입력하고 오시면 됩니다.  
본사 : 이멜 : cpj5037@daum.net . 네이버 이멜 / jntvcpi@naver.com



| 대표이사   | 증경이사장  | 명예이사장  | 명예이사장            | 명예이사장  | 명예이사장            | 명예이사장  | 부이사장   | 부이사장   | 부이사장   | 부이사장   | 부이사장   | 부이사장   | 대외이사장  | 부 사장   | 부 사장   | 부 사장   | 부 사장   | 부 사장   |        |
|--------|--------|--------|------------------|--------|------------------|--------|--------|--------|--------|--------|--------|--------|--------|--------|--------|--------|--------|--------|--------|
| 정기남 목사 | 조광수 목사 | 정한국 목사 | 이규필 목사           | 정기현 목사 | 정종욱 목사           | 김석중 목사 | 원대석 목사 | 박수영 목사 | 김희수 목사 | 최동훈 목사 | 곽애리 목사 | 김희동 목사 | 오승인 회장 | 상재은 목사 | 이창식 목사 | 유순욱 목사 | 김사라 목사 | 이기학 목사 | 최현우 목사 |
| 지도고문   | 논설고문   | 논설 고문  | 논설자문             | 논설자문   | 논설자문             | 총괄이사   | 총국이사   | 홍보국장   | 수석상임이사 | 수석상임이사 | 상임이사   | 상임이사   | 상임이사   | 상임이사   | 상임이사   | 상임이사   | 상임이사   | 상임이사   | 사무총장   |
| 이준복 목사 | 홍영표 목사 | 박영호 목사 | 최순길 목사           | 김영주 목사 | 허식 목사            | 송영문 박사 | 정영하 장로 | 임도전 장로 | 임정숙 목사 | 김장숙 목사 | 김부경 목사 | 이선한 목사 | 서병명 목사 | 이종철 목사 | 이상중 목사 | 최한근 목사 | 임요한 목사 | 김득수 목사 | 류재현 장로 |
| 홍보이사   | 칼럼리스트  | 광고 국장  | 후원천사             | 후원천사   | 후원천사             | 후원천사   |        |        |        |        |        |        |        |        |        |        |        |        |        |
| 이현희 장로 | 임예성 목사 | 성신의 국장 | 강국현 전서<br>박송지 전서 | 서정 아 님 | 박종찬 전서<br>홍종재 전서 | 임정순 전서 |        |        |        |        |        |        |        |        |        |        |        |        |        |

신문 방송사 / 경기도 부천시 지암로176번길 32(대운빌라 202호) 전화 / 032)672-3031 팩스겸용, 대표 : 010-5468-6574 홈페이지 (cjntv) <http://jntv.kr> (cpj tv) <http://cpj.kr>





가정예배

# 주님과 함께 하는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 (예복교회 담임 / 본지 사장)



소진우 목사

- 예복교회 담임
- 지저스타임즈·JTNTV방송 사장
- 라이프미션 총재
-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 백성TV칼럼리스트
- CTS칼럼리스트

**제목: 두로의 주된 산업**  
**성경: 사 23:5-7 찬송 309장**

베니게의 가장 중요하고 오래된 도시 국가인 두로는 다윗과 솔로몬의 무역 동맹자 하람 왕의 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역에 힘썼으며 물감, 유리 등의 산업을 발달시켜 지중해 상업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한편 이러한 두로를 향해 구약의 예언자들은 그들의 물질주의와 노예 매매 등에 대해 호되게 비난했습니다(을3:5; 압1:9).

**제목: 두로를 위해 여호와께서 정하신 일**  
**성경: 사 23:8, 9 찬송 310장**

하나님께서서는 두로로 하여금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며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하려 하셨습니다. 즉 무엇보다도 경제력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교만했던 두로에 대한 심판이 이미 작정되었던 것입니다. 세상물질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멀리하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백성은 복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시 146:5).

**제목: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  
**성경: 사 23:18 찬송 338장**

이는 유대 민족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것은 두로의 무역한 것과 그 이익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유대 민족이 먹고 입을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종말의 날에는 열방이 그의 예물을 시온으로 가져오므로 제사장 즉속인 유대 사람들은 그 예물로 생활하게 됩니다.

**제목: 더럽게 되는 땅**  
**성경: 사 24:5 찬송 305장**  
땅이 더럽게 되는 것은, 거민이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죄는 사람 뿐만 아니라 그가 살고 있는 이 세계까지 부패시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물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물질로 인한 사람의 죄악 때문에 악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재림으로 땅은 새롭게 회복될 것입니다(제 21:1).

**제목: 슬퍼하는 새 포도즙**  
**성경: 사 24:7 찬송 367장**

새 포도즙이 슬퍼한다는 말은 메마른 땅 위에서 모든 포도 열매의즙이 말라버렸다는 뜻입니다. 남방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기쁨과 향락과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포도즙이 말랐다는 것은 기쁨이 끝났으며 파국이 임했음을 의미합니다.

**제목: 의로우신 자**  
**성경: 사 24:16 찬송 301장**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때때로 묵시 문학에서 '의인'이란 사람의 아들 곧 메시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의로우신 자란 종말의 날에 모든 성도들이 찬양하고 영광 돌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제목: '여러 날 후'의 의미**  
**성경: 사 24:22 찬송 279장**

악한 영의 세력과 그의 하수인인 땅의 왕들이 갇힌 후라는 뜻입니다. 요한 계시록은 다시 오실 메시아께서 사단을 결박하여 그를 천 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신다고 예언했습니다(제30:3, 7). 그리하여 천년 동안 갇혔던 사단은 후에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받을 것입니다.

**제목: 외인의 원화**  
**성경: 사 25:5,6 찬송 253장**

이 말은 '포악한 자의 노래'와 더불어 난폭한 사람들이 부르는 오만한 노래 혹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의 비신앙적인 노래를 의미합니다. 이방 성도들이 시온 산으로 순례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더불어 함께 식사하실 것이며, 이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베풀어질 천국 잔치를 가리킵니다. 천국 잔치의

주재자는 하나님이시며 초청의 대상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입니다. 이 잔치의 특징은 음식이 풍부하여 아무리 많은 손님이 와도 부족함이 없으며, 사망의 공포가 영원히 없는 영생잔치이며 위로가 충만한 잔치입니다. 이 잔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제목: 기적의 주인공이 되라**  
**성경: 눅 4:16-30 찬송 220장**

우리가 새사람을 입으면 옛사람을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끊어주셨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 맨 줄을 끊으셨도다 (시107:14)." 하나님은 어느 시대이나 누군가에게 초점을 두십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삼년 육개월 간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기름부음의 은혜가 있었습니. 또한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환자가 있었으나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회복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목: 은혜 받을 때입니다**  
**성경: 고후 6:1-2 찬송 218장**

하나님이 은혜주시실 때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때 꼭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더 사모해야 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후6:2)." 사람이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하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쓴 저자도 "올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전3:4)."라고 조언합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의 도구요 복된 그릇으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제목: 기쁜 소식**  
**성경: 고전 15:1-4 찬송 293장**

오늘날 우리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천국의 백성

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자적이 갖춰져서가 아니라 자적이 없는 자에 자격을 주셨고 받을 수 없는 자에게 가져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만 깨달아도 주의 일을 하면서 교만하지 않고, 인색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깨달았기에 바울은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매 맞고 잠을 못 자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은 천국 길을 열어주시고 영생 허락하신 것이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믿음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붙잡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사모함으로**  
**성경: 빌전 2:1-5 찬송 31장**

"갓난 아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벧전2:2)." 사모함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애달게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을 애달게 그리워하는 사모함이 있으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편의 해답의 방법을 찾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사모'라는 것은 다른 소리는 안 들리고 다른 것은 안보이며 오직 그 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이런 마음 주소서**  
**성경: 시 90:1-17 찬송 550장**

성경에 기록된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시90:10)이라는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절 뒤에 이어지는 무서운 말씀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시90:11)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그 결과가 어떻게 두렵게 여기십시오. 그 두려움을 알고 산다면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게 살 수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일 년을 살아도 주님이 주신 지혜로 내게 주어진 날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것으로 주님 앞에 삼급을 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참 하나님의 사람**  
**성경: 갈 1:1-10 찬송 94장**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갈1:10)." 참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예수만이 구원임을 믿는 사람입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밖의 구원은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은 다음 나라를 준비하고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그 믿음을 굳게 가지고 천국 가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아닌 것 때문에 섭섭해하거나 시험들지 말고 모든 것을 복음으로 덮어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목: 큰 기쁨의 소식**  
**성경: 눅 2:8-10 찬송 93장**

깨어 있는 자, 다시 말해 준비되어 있는 자는 큰 기쁨의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깨어있는 자, 깨어있지 않은 자 모두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었는지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에게만이 기쁜 소식이며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이며 심판의 소식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희생해서서 우리 모두의 죄를 씻어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기쁜 소식이기도 하면서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입니다. 믿고 구원받을 기회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감사함으로 계속 전하시기 바랍니다.

## 쉬운목회

이춘복 목사

쉬운목회 저자  
남원교회 원로/본지 자문



## 바울의 고백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 없는 말을 하거나 나쁜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육에 감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십에서 하나 감한 때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기 또는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놀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린도후서 11:23-28).

자신이 복음을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고백하고 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당했다. 육에 감히

기를 수없이 했고,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유대인들에게 사십에서 하나 감한 때를 다섯 번 맞았고, 세 번 태장으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을 당하고, 참도 못 자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헐벗었다.

바울이 어떻게 이 많은 고난을 받고도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의 믿음이 경이롭다.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조그마한 자존심만 상해도 마음 아파하는 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진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고통보다 더운 더 놀리는 일이 있다고 고백한다. 바로 교회를 위한 염려다.

내가 수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교회를 위한 염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교회만 바로 세워질 수 있다면,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교회만 평안할 수 있다면, 나는 고통당해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다. 나는 늘 이런 마음으로 목회하기 위해 힘썼다.

교회만 바로 세워질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마음뿐이었다.

인터넷 최저가 보다 50만원 더 저렴한

## A3무한잉크 컬러 복사기

성공 목회를 위한  
엡손 완성형 정품 무한  
팩스 컬러 복합기

198만원 → 99만원! 반가격에 드립니다.

(2022년 기록과 관련 신문에 실린 광고입니다.)

**높은 생산성**  
유지비를 대폭 낮춘  
슈퍼 대용량 잉크

L15160 / L6570을 감청 잉크 127ml와 컬러 70ml의 대용량 잉크가 기본 제공되며, **장당 출력 비용** 대폭 낮춰 유지비 걱정 없이 대량 출력이 가능합니다.

슈퍼 대용량 잉크    **흑백 7,500 장**  
기본 제공 잉크    **컬러 6,000 장**  
장당 127ml / 컬러 각 70ml

**EPSON 완성형 정품 무한**  
**L15160 A3 / L6570 A4**

※ 모든 것이 올라도 저희는 가격을 내렸습니다

장로교회회-감리교본부-침례교본부-성경교회회 외 10,000여 교회에서 사용중입니다

# A3 컬러 복사기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 세계최초 유성(안료) 잉크

(2022년 기록과 관련 신문에 실린 광고입니다.)

(복사, 프린트, 스캔, 팩스, WiFi, 양면 기본)

## 컬러주보복사기 출시

since 1989 ~ 30년을 한결같이~

- ▽ 물에 번지거나 용지가 하지 않습니다.
- ▽ 소모품 비용 획기적 절감! (90%)
- ▽ 기존 컬러복사기의 1/10 정도

- ▽ 3단 6면주보 출력 가능
- ▽ 4단 8면 주보 출력 가능
- ▽ 주보 양면 연속 가능 (7캐트에서 주보가능)
- ▽ 1m 20cm 배너 출력 가능
- ▽ 현금봉투, 소봉투, 대봉투 출력가능
- ▽ 후면 급지대 (80매 적재가능)

250만원 → 139만원

**특별 할인**

소모품비용 90% 절감!

※ 컬러를 물 쓰듯 쓴다  
소모품 비용 획기적 절감

이전 비용 걱정 없이 컬러 인쇄를 마음대로~

- 자동 양면 인쇄 및 양면 스캔 지원
- 12.8cm 대경 컬러 터치 패널
- 대용량 용지 급지대 지원
- PC 없이 스캔 파일을 자유롭게 전송
- 중요한 문서는 비밀번호로 설정으로 보호
- 경제적인 슈퍼 대용량 잉크 카트리지가 책상으로 유지비용 절감
- 동급 최강의 빠른 출력속도(24~34매)

타이틀(15만원)옵션

이전에 주문하시는 교회에 한하여 잉크 한 세트(B/C, M, Y 4개)를 더 드립니다

## 세계최강! 세계최초! 유성(안료)잉크

### 높은 생산성과 경제성의 컬러주보 복사기

컬러복사기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감청 50,000매, 컬러 20,000매의 대용량 잉크팩이 장착된 세계최강, 세계최초의 유성(안료)잉크를 사용한 획기적인 컬러주보 복사기입니다.

**제품 특징**

1. 3단 6면주보 출력
2. 4단 8면주보 출력
3. 60cm 배너 출력
4. 주보 양면 연속 출력(7캐트 A4 주보)
5. 현금봉투, 소봉투, 대봉투 출력
6. 후면 급지대(80매 적재)

인터넷 최저가 대비 **50만원 저렴!**  
198만원 → 99만원

**경제성**

- 자동 양면 인쇄 및 양면 스캔 지원
- 동급 최강의 빠른 대용량 잉크 카트리지를 유지비용 절감
- 소모품 비용 획기적 절감(90%)
- 기존 컬러복사기 1/10 비용 소요

**생산성**

- 128cm의 대경 컬러 터치 패널
- 동급 최강의 빠른 출력속도(24~34매)
- 감청 5만 매, 컬러 2만 매 대용량 잉크팩
- 세계최강, 세계최초의 유성잉크 사용
- 대용량 용지 급지대 지원

**효율성**

- PC 없이 스캔 파일을 자유롭게 전송
- 중요한 문서는 비밀번호로 설정으로 보호
- 물에 번지거나 용지가 하지 않음
- 1989년 창업의 30년 노하우 제공
- 신속, 정확한 A/S로 영주의 원활한 극대

## 교회와 가정에 십자가의 불을 밝히고 싶어 특별한 혜택과 저렴한 가격으로 드립니다

**[특허상품] LED십자가**  
**2023년도 교회 기념품 선물용, 심방용, 임직용으로 추천**

Box(20개) 단위로 구입시 개당 6,000원    **LED 반석십자가**

**LED 무지개십자가**    1개당 35,000원



# 축 한국기독교 장로회

# 평안하고 든든한교회

## 2025년 근 하 신 년 『흥성 제일장로교회』

### 예배시간 안내

|               |               |
|---------------|---------------|
| 주일 낮 1부 오전 9시 | 흥성 / 내포 성전    |
| 2부 오전 11시     | 주일 낮 1부 오전 9시 |
| 주일 밤 / 수요일 밤  | 주일 밤 / 수요일 밤  |
| 예배 저녁 7:30분   | 예배 시간 동일함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사정리51(Tel.041-631-9146)  
교회카페 <http://cate.daum.net/ssaxp>

CJTN TV / CPJ TV 방송 직전 이사장 담임목사 오종설

# 축

## 포천 한마음소망교회 / 한마음재활요양원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 23:1)



담임목사 박종규



우편 11123 :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화동로402번길 26 010-4320-0012

# 축

##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

# 2025. 신년하례 감사예배

### 총 회 장



김안식 목사  
실만한물가교회

### 주제 :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약 3:17)



부총회장 정성봉 목사 예브론드림교회, 부총회장 최돌이 목사 성막교회, 부총회장 김복래 목사 꿈과희망교회, 서기 최정수 목사 일상교회, 부서기 김기출 목사 빛가람중앙교회, 회의록서기 허송무 목사 더엘교회, 부회의록서기 최혜순 목사 한소망교회, 회개 김사라 목사 푸른솔교회, 부회개 김은혜 목사 시온교회, 총무 김복래 목사 꿈과희망교회

일시 : 1월 6일(월) 오전 11시  
장소 : 베누비안(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89)  
(서울 지하철 7호선 '신봉역' 4번 출구)  
주관 : 웨신총회 109회기 임원일동

웨신총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172 (301호) 02)835-2606 Fax 835-2608  
<http://www.ws333.org>